

낙태 없는 세상, 생명 지키는 기도!

9월 27일~11월 5일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
64개국 100만 명 참여 ... 오전 9시 명동성당 들머리 앞

낙태 없는 세상, 생명 지키는 기도 캠페인이 열린다.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이 9월 27일(수)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명동성당 들머리 앞(서울 중구 명동길 66, 농협은행 명동지점 건너편)에서 시작된다. 11월 5일(일)까지 40일 동안 이어진다.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에 참여하고 싶은 성도들은 홈페이지(40days.forlife.or.kr)에서 기도문을 다운로드 받아서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면 된다. 기도문에는 미국과 한국의 낙태 현황, 기독교 생명윤리 관점,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 기도제목 등이 담겨 있다.

명동성당 들머리 앞에서 진행되는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 현장 릴레이 기도에 참가하고 싶은 성도들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한 날짜에 정해진 장소를 찾아가 현장에 비치된 기도문을 읽고, 피켓을 들고 한 시간 동안 기도하면 된다. 현장 릴레이 기도에서는 전 세계 기도 봉사자들이 낙태 종식을 위해 "수정부터 인간의 생명이 시작된다", "낙태 없는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생명은 가장 첫 번째 인권입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기도한다. 위기 임신 지원센터 봉사활동도 한다.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은 낙태 중



사진은 지난해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

식을 위한 국제 기도 캠페인이다. 64개국 100만 명이 참여한다. 미국 텍사스 브라이언의 낙태 지원센터 폐쇄를 목적으로 'Brazos Valley

Coalition for Life' 회원 4명이 시작했고, 다른 도시와 나라로 확장했다. 지금은 매년 봄과 가을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 캠페인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1년 가을부터 시작했다. 문의: 02-703-4620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추수감사절 사르밧 프로젝트

10월 8일까지 현금 및 대상자 선정

2023 추수감사절 '사르밧 프로젝트' 현금 봉헌 및 대상자 선정을 10월 8일(일)까지 마쳐야 한다.

사르밧 프로젝트 대상자는 1순위 온누리공동체 소속 성도, 2순위 외부 기관, 3순위 외부 개인 순으로 선정하면 된다.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반드시 공동체 담당목사와 대표장로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대상자가 선정되면 10월 8일(주일)까지 공동체 이름으로 서빙고와 양재는 이메일(서빙고: 23thanksgiving@naver.com, 양재: hyomin2021@naver.com), 다른 캠퍼스는 목회지원실에서 접수하면 된다.

사르밧 프로젝트 '감사의 쌀' 현금 봉헌도 해야 한다. 쌀 20kg 한 포대 가격(6만5천원) 기준으로 형편에 맞게 봉헌하면 된다. 순에서 현금을 입금할 때는 공동체, 다락방, 순 이름을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예: 한강마리아2순). 개인 참여를 원하는 성도들은 현금을 송금할 때 이름, 생년월일을 꼭 기록해야 한다(예: 홍길동 850128). 송금 계좌는 서빙고 '하나은행 573-910019-14805', 양재 '하나은행 573-910021-35705'이다. 각 캠퍼스 송금 계좌는 목회지원실에서 확인하면 된다.

올해 사르밧 프로젝트에서는 10월 30일부터 온누리교회 협력 농어촌교회에서 수확한 쌀을 어려움을 겪는 성도, 교회 밖 이웃, 기관 등에 직접 배송한다. 서빙고와 양재를 제외한 다른 캠퍼스에서는 상황에 맞춰 대상자에게 전달해도 된다.

문의: 02-3215-3434

/ 홍하영 기자

이주민을 위한 추석연합집회 '2023 Harvest'

9월 29일~10월 1일 파주 영산수련원

이주민을 위한 추석연합집회 '2023 Harvest (하비스트)'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9월 29일(금)부터 10월 1일(주일)까지 파주 영산수련원(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등원로391번길 40)에서 'Way, Truth, Life(길, 진리, 생명)'를 주제로 막 오른다. 몽골, 네팔, 필리핀, 미얀마,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중국, 페르시아 등지에서 온 이주민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Harvest(하비스트)'는 이주민들이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면서 하나님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하는 연합예배다. 올해 하비스트에서는 세 번의 예배, 나라별 장기자랑, 나라별 모임, 조셉 붓소 형제의 특별 공연 및 간증, 미니올림픽, 성찬식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9월 29일 김성환 목사(부산수영로교회) '길', 30일 김태진 목사(미 해병대) '진리', 10월 1일 노규석 목사(온누리M미션) '생명'을 주제로 말씀을 전한다. 문의: 010-9418-1910

CGN 선교 후원 '기특하데이'

홈페이지에서 후원증서 작성 및 제출

CGN 선교 후원 '기특하데이' (이하 기특하데이)에 참여하면 기념일을 더욱 특별하게 보낼 수 있다. CGN 선교 후원 '기특하데이'는 졸업, 입사, 임신, 출산 등 개인과 가정의 기념일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캠페인이다. '기특하데이' 후원금은 CGN 복음 콘텐츠

제작, 기독 플랫폼 운영, 선교지 맞춤 미디어 선교, 한국 교회 섬김 등에 사용한다. '기특하데이' 후원자들에게는 기념일 후원증서를 전달한다. 정기 3만 원 이상 또는 일시 10만 원 이상 후원자들에게는 기념 굿즈도 보내준다. 참여를 원하는 성도들은 CGN 홈페이지(cgntv.net)에서 후원증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문의: 02-796-2243

Q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길
진리
생명

주일강단



박종길 목사

오늘 본문은 뜻을 구한 이후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하나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1절). 아브라함이 북쪽 그돌라오멜과 연합했던 군대를 한밤중에 기습해서 조카 롯을 구출해 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벨기세덱을 만나 십일조를 드리며 큰 영적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그가 홀로 남게 되었을 때 엄청난 두려움에 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서 판단력이 흐려지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절망의 늪으로 빠져듭니다.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고, 자신이 위험하고 사악한 지역 한 가운데 있는 걸 보면서 아브라함이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니 네가 받게 될 상이 아주 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 등장하는 ‘두려워하다’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언급된 것은 아니지만, 이 명령은 처음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고, 우리가 듣기 원하고 사모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심을 믿고, 염려와 근심,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네가 받게 될 상이 아주 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 속에서 근심과 걱정, 염려와 두려움이 엄습했을 때 아브

라함이 듣고 만났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과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둘째, 하나님에게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2-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신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받고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를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던 말씀을 기대하고 자식이 있기를 소망했지만 없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하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임양하겠다는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고,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10년은 굉장히 절망하고, 낙담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아서 걱정이고 염려되는 시간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이 10년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연단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뜻을 분명하게 보여 주는 시간이었습니 다. 우리가 낙담하는 상황, 걱정과 염려로 근심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함과 염려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고,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뜻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우리의 생각과 시간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시간과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뜻과 계획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간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가 하나님의 한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10년 넘도록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신 이유는 그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더 나아가면 훗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날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자가 약속의 자녀를 낳은 것처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날 것을 미리 보여 주는 장면입니다.

우리의 길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하

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계획을 맞추고,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 나의 사정과 형편을 아뢰십시오. 하나님에게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셋째,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하나님이 은하수 자체가 강같이 보이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올라다보고, 별을 세어보아라. 셀 수 있겠나? 네 자손을 이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5절).

조금 전까지 서운한 마음을 가졌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는다’는 단어가 이 구절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의를 소유하게 되는 것은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갖춰서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로마서> 4장 3절, <갈라디아서> 3장 6절,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 인용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라고 합니다”(롬 4:2-3).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증명합니다.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의로움은 믿음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을 믿음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4절이나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엡 2:8).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믿음을 가진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 믿음은 구원을 얻는 열쇠입니다. 믿음 자체가 구원은 아니지만, 믿음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는다는 사실보다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념이나 철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구원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 지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얻어집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의로움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덕분에 그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신 것처럼, 십자가로 구원을 받는 복음의 핵심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의롭다고 여겨 주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그분을 필요로 할 때 오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해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는 시간도, 능력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겪는 한계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우리의 시간과 계획, 뜻을 맞추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구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움을 소유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일어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십시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류현모 교수의 기독교 세계관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섹슈얼리티

‘섹슈얼리티’란 용어는 19세기 후반 만들어졌다. 그 이후 용어가 확장되어 성적 욕망 혹은 심리 상태, 성 이념, 성과 관련된 제도나 관습에 의해 규정되는 사회적 요소들까지 ‘성에 관한 모든 것’을 포함하는 단어가 되었다. 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성행위 그 자체 등도 포함하는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용어다. 우리말로 번역이 어려워서 그냥 ‘섹슈얼리티’라고 부른다. 이 성 혁명적 용어가 10여 년 이상 아이들의 교과서에 그 다양한 용례 그대로의 행위를 장려하면서 버젓이 올라가 있었다.

성 혁명이 진행되는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이 섹슈얼리티를 자기 정체성의 중심적 측면으로 본다. 그들은 몸이 우리가 가진 전부이며, 성적 충동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가장 강력하고, 진실한 생화학 반응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그들에게 성적 욕망의 표현은 진정성의 열쇠이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프로이트(Sigmund Freud)를 이 관점의 근원으로 생각한다. 그는 〈섹슈얼리티 이론에 관한 세 가지 에세이(three essays on the theory of sexuality)〉라는 책을 통해 인간의 성장단계를 성적 표현방식으로 구분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성욕에 대한 억압이 모든 신경증(노이로제)과 변태적 성행동의 원인이라 설명했다. 프로이트는 성에 대해 대단히 보수적이었으나 그의 학술적 주장은 성 담론을 터부시하던 시기 매우 자극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산아제한의 어머니’이자 가족계획협회(Planned Parenthood)의 초대 회장인 마가렛 생어(Margaret Sanger)는 성욕이 가장 원천적인 인간의 욕구라는 프로이트의 입장을 공유했다. 마가렛 생어는 성과 출산의 관계를 하나님이 창조사역을 계속하기 위한 설계로 보는 게 아니라, 인간이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시기에 성관계할 수 있는 자유에 장애를 유발하는 진화적 결함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여성의 생식권 옹호, 즉 피임 및 임신중절의 합법화를 촉구하면서 자유로운 섹슈얼리티를 주장했다.

프로이트와 마가렛 생어의 가르침에 따라 성욕을 억제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해롭다는 인식이 오늘날 널리 퍼져 있다. 이 인식은 성과 결혼에 대한 전통적 견해에 도전해 〈남성의 성적행동(1948)〉

“하나님의 설계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섹슈얼리티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개인의 육체와 영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한다.”

과 〈여성의 성적행동(1953)〉이라는 두 권의 책을 쓴 알프레드 켄지(Alfred Kinsey)에 의해 가장 악명 높게 나타났다. 과학으로 포장된 켄지의 보고서는 자기주장을 정당화하려고 의도적으로 선정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사기성 연구임이 드러났다. 하지만 40여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프로이트, 마가렛 생어, 켄지의 주장을 확인하는 사람들에게 성적표현의 제약이란 사람들을 건강하지 못하고, 불행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일 뿐이다.

이 반성경적인 성 혁명의 여파는 참혹했다. 성 혁명의 열매로 수많은 섹슈얼리티 관련 산업이 번성했다. 성적인 내용을 가진 영상, 사진, 글, 그림 등이 인터넷과 출판물로 흘러넘치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 자극해 돈을 벌어들이고, 그 영향력을 확산하고 있다. 섹스산업에 사람들이 많은 돈을 소비하는 동안 또 다른 사람들, 특히 일부 여성과 어린이들이 섹스산업으로부터 전례 없는 수준의 학대와 착취를 당하고 있다. 그 결과 가정이 무너지고, 아이들이 거리로 내몰리게 되고, 그들이 또 다른 희생자가 되는 악순환이 지속된다.

그러나 성 혁명 이념을 따라 말초적인 성적 욕구를 즉각적으로 해소하려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외롭고, 불행하며, 성적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된다. 영혼이 배제된 육체만의 성관계나 외설물을 접하는 것은 남녀 관계를 부자연스럽게 성적 대상화 함으로써 영·혼·육의 전인적 결합을 통해 지속적인 신뢰의 관계로 발전하는 것을 방해한다.

기독교 세계관은 성경으로부터 진리를 찾아내고, 성경의 기준을 성경의 방법에 따라 추구한다. 성경 메시지의 핵심은 인간이 육체와 영혼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몸과 영혼이 미묘하고 아름다운 방식으로 상호작용한다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졌음을 말한다. 하나님의 설계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섹슈얼리티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개인의 육체와 영혼의 관계를 파괴하고, 영혼이 배제된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작용한다. 성경의 기준을 벗어난 섹슈얼리티는 AIDS를 포함하는 매독, 임질 등 성매개질환의 감염 위험성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인 자녀의 잉태도 재앙으로 만들어 버린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한 경계를 정해주시고, 그것을 넘지 말 것을 명령하신다. 그 울타리는 우리를 보호하고, 안전과 평안을 위해 정해주신 것이다. 섹슈얼리티의 경계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때로 알게 모르게 경계선 주변을 넘나드는 줄타기를 한다. 그 빈도가 잦아지면 경계선을 조금씩 옮겨보다 결국에는 경계선을 지워버리거나 선악의 기준을 뒤집어 버리기도 한다. 우리는 모두 죄를 범하기 쉬운 연약한 존재이다. 하지만 우리가 지키기 힘들다고 그 기준을 없애거나 뒤집으려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 기준을 바꾸신 적이 없다.

인구감소, 성경적 세계관으로 답하다

인구감소 현상에 숨겨진 가치관의 존재

신무환 장로
(온누리세계관학교 담당장로)

사회현상은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철학이나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다. 법칙에 따라 설명되는 자연현상과 달리 개연성과 특수성이 존재하는 사회현상은 매우 복합적인 원인들이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확실한 원인 규명 없이 다수의 구성원들이 무의식적으로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많은 사회현상이 범람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이러한 기도를 원하신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마 6:10).

많은 현상으로 대변되는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한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이 특정한 사회현상의 내면에 깔린 가치관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세상의 사조에 휩쓸리거나 방조하다 보면 하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를 어렵게 하는 중요한 사회현상 중 하나가 젊은 세대의 결혼 및 출산 기피 성향이다. 2022년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이 38개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인 0.78명에 불과하다.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세계에서 첫 번째 인구소멸국가는 한국이라고 이미 예견했다.

인구감소는 교회의 미래와도 매우 긴밀한 관련이 있다. 수많은 교회로 넘쳐나던 유럽 교회들의 급속한 쇠퇴의 직접적 원인이 출산율 저하와 기독교적 세계관의 쇠퇴로 인한 이혼률 증가 등으로 알려졌다. 세계관과 인구 증가의 상관성이 무엇일까? 유럽에서 쇠퇴하는 천주교나 기독교와 달리 교세가

“성경적 세계관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한 것을 미래 지향적으로 바라보며
현실에서 열심히 이루어 가는 삶을 지향한다.”

확장되는 동방정교나 이슬람교 기반의 국가들의 인구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이 사실은 인구와 구성원들의 가치관에 분명한 상관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영국 런던 대학의 세계적 인구학자 폴 몰란드(Paul Moland)의 주장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국가소득에 비례해서 인구감소 현상이 더욱 심화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이례적으로 종교성이 강한 나라의 경우 소득 증가에 따른 인구감소 심화 현상이 두드러지지 않는다.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2010년부터 30명 이상(2019년 예외)의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 이스라엘의 경우, 폴 몰란드가 지적한 인구감소와 그 나라의 가치관과의 밀접한 상관성이 더욱 설득력 있게 들린다.

인구감소라는 심각한 사회현상을 야기하는 세속적 세계관이 무엇인가? 인본주의적 세계관이다. 인본주의에서는 모든 현상의 근원이 물질이며, 인간도 예외 없이 물질로 해석해 영혼과 부활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본주의적 세계관에 물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동체가 아니라 개인이다. 미래나 내세의 행복이 아니라 현재의 행복뿐이다. 결혼이라는 제도와 자연스러운 출산의 축복이 인본주의자들에게는 본인의 행복을 저해하는 장애 요소로 전락할 뿐이다. 만일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진화론에 근거한 경쟁과 생존이라는 모토가 강력하게 작동되는 고도의 산업화 사회에 인본주의적 세계관이 근본적 가치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 그 사회는 폴 몰란드 박사의 사회학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최악의 인구절벽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 인구감소 현상은 오히려 성경적 세계관이 인본주의와 같은 세속적 세계관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성경적 세계관은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한 것을 미래 지향적으로 바라보며 현실에서 열심히 이루어 가는 삶을 지향한다. 반면,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은 현재에 국한된 개인적 행복을 최우선시하는 세계관이다. 기독교인이란 성경적 세계관을 기반으로 하는 각자의 삶을 통하여 진정한 행복과 소망이 있는 역사와 사회를 만들어 가는 자들이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과 정사와 권세의 창조자요, 다스리는 분이므로 궁극적인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시는 분이시며 성경은 바로 살아 계신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노치형 목사
(충주로공동체)

2023년 추석감사예배 및 추모예배

가 · 정 · 예 · 배

가정예배 지침

1)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헌법 <예배와 예식> 편에서 “우리나라의 민족이 오랫동안 지켜 온 명절과 국경일 등은 우리의 교회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예배의 계획과 설교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온누리교회는 절기에 맞는 예배 자료를 성도에게 공유하는 것입니다.

2) 추모예배는 죽은 자를 예배하는 제사와는 완전히 다른 예식이며, 죽은 자를 추억하며 슬퍼하는 추도예배와도 다릅니다. 사랑했던 가족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억하며, 한

영혼을 사랑하여 구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을 지켜 죽은 자를 경배하는 제사상에 절하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향이나 촛불을 켜지 않으며, 지방을 쓰거나 음식상을 차려 놓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했던 가족의 사진을 놓고 그리워하며 생전의 좋은 추억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3) 추석감사예배의 경우 가족들이 둘러앉아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 함께 식사를 나누는 뒤 검소한 선물들과 함께 가족별 장기자랑을 하거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 작은 사랑을 실천한다면 더욱 의미 있는 명절이 될 것입니다.

조신앙을 지닌 모든 사람이라면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창조주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속성을 지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3절).

“오월 농부, 팔월 신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추석(秋夕)에 사용하던 말로, ‘여름 동안의 땀 흘린 보람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좋은 ‘추석’이라는 명절에 기독교인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확과 풍성함을 주신 분이 우리를 돌보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절기에 우리는 가족 한 명 한 명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가족으로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올해 추석에는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가족들을 다시 대면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간구합니다”(4~5절).

우리는 물질, 지식, 건강, 관계에서 체험하는 부족함을 채우고 완전해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족함을 채웠다고 완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스스로 부족함 없는 완전한 삶을 누릴 수 없습니다. 가족이 함께 부족함을 채워줄 때 비로소 힘이 되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 안에서 가족 모두 하나가 된다면 더욱 온전한 만족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가족 모두가 하나님께 허락하신 기쁨의 대상임을 확신하고, 서로를 위해 하나님께 중보기도와 간절한 간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6절).

모든 사람은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는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지 못할 때와 자신의 가치를 알고 낯을 때의 차이는 하늘과 땅입니다. 현실은 그대로였지만, 자신이 오리가 아니라 백조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사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가치뿐만 아니라 ‘너’의 가치도 인정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세상의 소금과 빛’ 이면, 상대방도 ‘세상의 소금과 빛’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가치를 확실히 알고 있을 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기쁘게 행하며 살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늘과 땅에서 모두 성취하신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선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나가는 말

2023년 추석을 맞으며 우리는 가족 안에서 함께 해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가족 한 명 한 명의 속에 선한 것을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족 모두를 통해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어가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확신하기를 소망합니다. 가족 모두가 서로의 가치를 발견하고,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아름다운 치유와 회복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순서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경배와찬양 7장).....	다같이
기도	가족 중에서	
성경봉독	빌립보서 1:3~6.....	가족 중에서
설교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을 발견해주시는 하나님.....	설교자
감사와 기도제목 나누기.....		다같이
(돌아가면서 서로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기도제목을 나눈다.)		
중보기도		다같이
찬송	예수 사랑하심을(새563, 통411).....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을 발견해주시는 하나님

들어가는 말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왜 악한 생각이 끊이지 않는 나와 인류

를 여전히 사랑하며 마음에 두고 계실까?’라는 생각입니다. 또한 내 속에 깊은 뿌리처럼 자리 잡은 생각은 ‘하나님은 죄인인 나를 기억하시고, 내 안에 선한 일을 이루도록 날마다 순간마다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이미 존재한다는 것을 창

추 · 모 · 예 · 배

예배순서

오늘 우리는 고(故) 000님을 추모하며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묵도	시편 23:1~6.....	다같이
찬송	내 영혼이 은총 입어(새438, 통495).....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대표기도	가족 중에서	
성경봉독	데살로니가전서 4:13~18.....	가족 중에서
설교	남은 인생 동안 일어나서 빛을 비추세요.....	설교자
찬송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되어도(새545, 통344).....	다같이
추모하는 이야기		다같이
(다같이 사랑했던 가족을 기억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좋은 추억들을 나눈다.)		
주기도문		다같이

남은 인생 동안 일어나서 빛을 비추세요

들어가는 말

사랑하는 000가 우리의 곁을 떠난 지 00주기를 맞이하여 드리는 이 추모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가족 모두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이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했던 000를 추모하는 이 시간이 예수

님이 우리 가족에게 주시는 생명의 메시지를 듣고, 빛이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하늘 소망으로 채우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대는 어둡고 더러운 모습이 가득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어디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의 더러움과 어두움이 사회와 가정,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지저분하고 캄캄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예배하

고, 서로를 섬기는 교회에도 우리 마음속 더러움과 어두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우리 마음을 깨끗하고 밝게 청소하고, 진실한 예배를 드렸으면 합니다.

빛이신 하나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빛’이 되었다고 전파했습니다(요 1:4). 삼위일체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와서 ‘생명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우리 가족 모두에게 남아 있는 생명은 모두 빛이신 하나님께 받은 것임을 날마다 확인하며 누려야 합니다.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

1998년, 어느 날 있었던 일입니다.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잔돈이 없어서 음료를 사면서 잔돈을 바꾸었습니다. 한 손에는 잔돈을 쥐고, 한 손으로는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다가 제 손에 있던 잔돈마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잠시 고민하다가 잔돈을 줌기 위해 쓰레기통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에 더러운 것들이 묻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덕에(?) 동전 700원을 모두 찾을 수 있었습니다. 더러워

진 동전을 닦으면서 저는 죄로 더럽고 어두워진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밝고 깨끗하게 닦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빛을 비추라’ 명령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일어나서 빛을 비추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드러내며 남은 인생을 살아가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음으로 거짓과 죄악과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둘째,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언제 어디서나 선포하는 것입니다. 셋째, 선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마 5:16).

나가는 말

우리는 함께 생명의 빛을 드러내며 살아왔던 사랑하는 000를 다시 기억합니다. 000의 생명 빛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지만, 빛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생명의 빛을 받아 누리고 있는 모든 가족은 남아 있는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의 마음으로 풍당! - 대인관계와 성격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성격’



최은영 교수
(햇빛트리니티 신학대
학원대학교)

성격은 우리 인생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 성격에 따라 자신을 바라보는 자기상, 타인을 바라보는 타인상,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 그래서 많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성격 좋은 아이로 자라기를 바란다.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성격이 있다. 성경적으로 자녀를 ‘성격 좋은 아이’로 키우는 방법도 있다.

성격이란 무엇일까? 심리학에서는 ‘내가 살아남기 위해 지속하는 행동 패턴’을 성격이라고 말한다. 자라면서 누군가의 칭찬을 듣기 위해,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관심을 얻기 위해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해온 행동이 성격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많이 해본 행동이 자신의 행동 패턴, 곧 성격이 되는 것이다. 어쩌면 습관보다 고착화된 행동을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행동은 타인에게 보여진다. 성격이 고착화된 행동이라면, 나의 성격이 다른 사람 눈에도 보이는 것이다. 내가 하는 좋은 행동 혹은 좋지 않은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성격이 좋은 사람’, ‘성격이 안 좋은 사람’으로 구별한다.

성격은 언제 만들어질까? 대부분 어릴 때 만들어진다. 양육 환경에 따라 성격이 달라진다. 자녀의 성격 형성에서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심리학에서는 만 18세까지는 성격 변

화의 여지가 크다고 본다. 이 말은 즉, 청소년 시기 자녀라도 부모의 양육 방법에 따라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두 가지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유형은 ‘나는 특별해, 나는 잘났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만 특별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떤 행동을 보일까? 타인을 하찮게 보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한다. 모든 인생의 실패에서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남 탓을 한다. 이러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 곁에는 아무도 없다.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싫어할 수밖에 없다. 원만한 대인관계를 할 수 없다.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성격’은
“나도 죄인이고, 남도 죄인이다. 나처럼 남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다”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심리학에서는 부모가 훈육하지 않을 경우 이 성격 유형이 나타난다고 말한다. 아이가 잘못했을 때 혼내지 않고,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남탓으로 돌리며 양육하는 부모가 있다. 이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타인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한다. 자신보다 높은 사람이 없기에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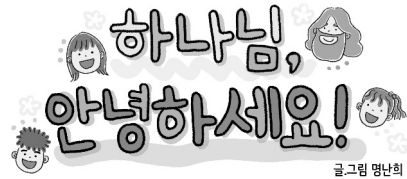
두 번째 유형은 ‘나는 부족해,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대인관계에서 늘 위축되고 불안함을 느낀다. 타인은 모두 자신보다 잘 나고, 힘이 센 사람처럼 여기기 때문에 경계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행동

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낀다. 자신에게 심리적 벽을 치는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 경우에도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다.

심리학에서는 학대하는 부모에게서 성장한 자녀가 이러한 성격 유형을 띤다고 말한다. 아이의 자존감을 낮추는 말을 하는 언어적 폭력, 아이를 때리는 신체적 폭력, 부모 시선에서 완벽한 기준을 만들고 아이를 끼워 맞추려는 정신적 폭력이 모두 해당한다. 이러한 양육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대인관계에 서툴 수밖에 없다.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 세상을 알게 된다. 변화하는 부모를 통해 자녀의 변화도 나타난다. 자녀를 ‘성격 좋은 아이’로 양육하고 싶다면, 부모의 생각과 행동부터 달라져야 한다. 상담에서 말하는 좋은 성격은 ‘나도 약하고, 남도 약하다. 나도 강하고, 남도 강하다’라고 생각하며 행동하는 것이다. 상담에서 말하는 이 정의를 성경에서도 똑같이 말한다. 성경은 “나도 죄인이고, 남도 죄인이다. 나처럼 남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고 말하고 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매일 이것을 가르쳐야 한다. 나와 남을 다르게 보지 않는 아이, 나를 귀하게 여기듯 남을 귀하게 여기는 아이가 ‘성격 좋은 아이’다.

* 이 글은 기독교 OTT ‘풍당’ 프로그램 [청소년 감정 코칭] 자녀 마음을 읽어주세요 3편 대인관계·성격을 요약 및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강의는 기독교 OTT ‘풍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5. 감사의 대상



성경 QUIZ

출제범위: <예수님이 좋아요> 9월 20일(히 10:32~39), 21일(히 11:1~6) 본문



1.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도 때로 힘든 일이 찾아와요.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기도 해요. 그때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야 해요.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선물로 주세요(히 10:32~39). 무엇일까요?

① 영원한 생명 ② 많은 돈 ③ 높은 지위 ④ 건강

2.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인정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아래 문장을 읽고 누구인지 맞춰보세요.

① 이 사람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히 11:4). ()

② 이 사람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데려가셨어요(히 11:5). ()

* 정답과 함께 이름, 소속, 연락처를 적어서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차세대 아웃리치 간증

“누군가의 디딤돌이 되고 싶습니다”

지난 8월, 저는 고등부 해외 아웃리치를 다녀왔습니다. 교회에서 일본으로 아웃리치를 간다는 소식을 듣고 기대가 되었습니다. 부모님께 아웃리치에 가고 싶다고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학원은?”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학생으로서 가는 마지막 아웃리치일 수 있고, 코로나19 이후 첫 해외 아웃리치라 꼭 가고 싶어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하게도 부모님께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흔쾌히 허락해주셨습니다.

사실 해외 아웃리치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 ‘이번에도 힘들겠지’였습니다. 4년 전 갔던 필리핀 아웃리치가 정말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기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운 마음을 안고 일본 아웃리치를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 걱정을 모두 지워주시고 은혜를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번 아웃리치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일본 요코하마교회에서 진행된 ‘원데이캠프’입니다. 원데이캠프는 미취학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캠프에 온 아이들이 모두 교회에 다니는 줄 알았는데, 교회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이 놀랐습니다. 말이 통하지는 않았지만, 캠프에 모인 아이들 모두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프로그램들을 즐겁게 보여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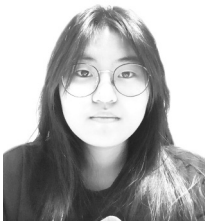
매일 밤 기도회도 은혜였습니다. 기도회에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일본의 크리스천이 전체 인구의 0.5%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퍼지기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100%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번 아웃리치는 4년 전에 경험했던 아웃

리치와 전혀 달랐습니다. 일본에 대한 편견도 사라졌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도 깊이 체험했습니다. 목사님이 아웃리치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들은 너희가 예수님께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는 디딤돌 같은 분들이야.”

목사님이 해주신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목사님과 선생님들 덕분에 이번 아웃리치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일본땅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누군가의 디딤돌이 되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디딤돌 삼아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서인영 학생
(대전 고등부)

“더 멋진 세상 함께 만들겠습니다!”

NGO 더멋진세상 새 홍보대사 김영우, 이정민

NGO 더멋진세상에 새로운 식구들이 생겼다. 지난 9월 19일(화) NGO 더멋진세상 홍보대사 위촉식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가수 김영우(스윗소로우)와 아나운서 이정민(전 KBS 아나운서)이 NGO 더멋진세상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이들은 앞으로 NGO 더멋진세상의 귀한 사역을 교회와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NGO 더멋진세상 홍보대사 김영우(이하 김)와 이정민(이하 이)은 “더 멋진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NGO 더멋진세상 홍보대사로 위촉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과 NGO 더멋진세상 후원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김영우: “반갑습니다. 스윗소로우 김영우입니다. 정말 귀한 사역을 하는 NGO 더멋진세상의 홍보대사로 쓰임 받게 되어 정말 큰 영광입니다. 전 세계 이웃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벌써 마음이 뭉클하고 감격스럽습니다. 홍보대사로서 NGO 더멋진세상의 멋지고 귀한 사역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얼마든지 돕겠습니다. 홍보에만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음악이라는 달란트를 활용해서 NGO 더멋진세상과 함께 많은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더 멋진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이정민: “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인 NGO 더멋진세상의 홍보대사를 맡게 된 전 KBS 아나운서 이정민입니다. NGO 더멋진세상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정말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는데 함께 일할 기회를 얻어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 이름대로 더 멋진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열정으로 사역하는 NGO 더멋진세상과 한 가족이 되어서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부족한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NGO 더멋진세상을 열심히 알려드리겠습니다.”

NGO 더멋진세상과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 “저는 NGO 더멋진세상의 사역을 소개하는 영상의 내레이션을 했습니다. 내레이션을 하면서 NGO 더멋진세상이 하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튀르키예 지진 등 다른 나라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떻게 도왔고, 전 세계 굶어가는 어린 생명을 살리기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웃들을 위한 일이라면 언제, 어느 곳이든 달려가는 NGO 더멋진세상을 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목소리뿐만 아니라 온몸으로 NGO 더멋진세상을 소개할 수 있어서 기뻐합니다.”

이: “저는 NGO 더멋진세상의 오랜 후원자입니다. 7년 전 온누리교회의 비전헌금 봉헌과 정기후원 행사에서 NGO 더멋진세상의 사역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가 오지에 마을을 만들어주고, 먹지 못하는 아이들을 먹이고, 어려운 이웃들이 자립하도록 도와주는 등 NGO 더멋진세상이 하는 귀한 사



역을 보면서 큰 은혜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NGO 더멋진세상 후원자가 되어 이웃 사랑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NGO 더멋진세상 홍보대사로서 7년 전 제가 받았던 은혜를 다른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도록 힘 쓰겠습니다.”

NGO 더멋진세상의 많은 사역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사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김: “NGO 더멋진세상의 긴급구호가 가장 중요한 사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긴급’이라는 단어는 ‘아주 급하고 중요하다’는 의미 아닙니까? 지구촌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꼭 필요하고, 중요한 순간에 나타나 도움을 주는 단체가 NGO 더멋진세상인 것 같습니다. 골든타임에 의술로 생명을 살리는 의사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 사람들을 구하는 특공대처럼, NGO 더멋진세상의 긴급구호 사역이 정말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NGO 더멋진세상의 사역이 감동이고, 좋은 점은 모든 구호 활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구호 활동을 하면서 종교를 드러낼 순 없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가고, 돕고, 일하는 그 자체가 정말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사역 보고를 할 때도 성과나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

는 것을 보면서 정말 멋진 NGO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제가 엄마이다 보니까 NGO 더멋진세상이 전 세계 어린아이들을 돕는 활동에 마음이 더 가는 것 같습니다. 먹지 못해 쓰러지는 영양실조 아동들을 돕고, 가난한 아이들이 멋진 꿈을 꾸도록 교육하고, 질병으로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리는 NGO 더멋진세상에게 참 감사합니다.

NGO 더멋진세상의 사역이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온누리교회와 후원자들을 연결해주는 멋진 통로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튀르키예 지진, 아이티 지진 등 다른 나라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을 때 돕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온누리교회에서 NGO 더멋진세상을 통해 돕는 방법을 알려줘서 참 좋았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활동하는 단체라는 점이 NGO 더멋진세상의 사역을 더욱 풍성하고 멋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NGO 더멋진세상 홍보대사로서 앞으로의 포부를 밝혀주시고,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 “요즘 세상 살기가 참 쎈겁니다. 내 삶을 챙기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웃들을 한번 떠올려 봐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또 다른 가족들에게 손을 뻗어주시고, NGO 더멋진

세상이 성도님들의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겠습니다.

혼자 하는 건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힘이 들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함께 하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NGO 더멋진세상이 하는 일이 혼자 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한 사람의 관심,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후원이 모이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에 동참해주시고.”

이: “더 멋진 세상, 이름 자체가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NGO 더멋진세상과 함께라면 더 멋진 세상을 꿈꿀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봉사를 어렵게 생각합니다. 구호 활동을 부담스러워서 하십니다. 많은 금액이 있어야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랜 기간 해외에 나가 직접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돕는 일에는 큰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은 아주 작은 관심과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한 달에 천 원, 만 원 소액으로도 아이들이 먹을 음식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마실 깨끗한 물이 나오는 우물을 파줄 수 있습니다. 말라리아 감염을 막기 위한 모기장을 줄 수 있습니다. NGO 더멋진세상과 함께라면 작은 관심과 후원으로도 모두가 행복한 더 멋진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더 멋진 세상을 함께 만들어갈 아름다운 사람들을 기다리겠습니다.”

당신이 온누리입니다

새 꿈과 비전 선물하는 ‘온소미(溫笑美)’

‘온소미 장학금’ 박정환 형제, 한리아 학생, 강예성 학생

따뜻할 온, 웃음 소, 아름다울 미, ‘온소미(溫笑美)’는 ‘따뜻한 미소가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온누리복지재단에서 운영 중인 장학사업의 이름이다. 온소미 장학사업 덕분에 오늘 또 한 명의 청년이 새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새기고 있다. 온소미 장학금의 주인공들을 만났다. 군 복무 중인 박정환 형제, 홍익대학교 한리아 학생, 한대학교 강예성 학생이다.

/ 김다에 기자 daa2@onnuri.org



온소미 장학금을 받은 박정환 형제, 한리아 학생, 강예성 학생(왼쪽부터).

온누리복지재단에서 운영 중인 장학사업인 ‘온소미’는 소외된 이웃들의 생활 지원부터 불우한 청소년과 탈북민의 학업 및 자립을 돕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들도 섬기고 있다. 그 따뜻한 사랑 덕분에 위기가정 청소년에서 멋진 꿈을 꾸는 청년으로 성장했고, 탈북민과 선교사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발견했다. 온소미 장학금 주인공들의 꿈과 비전을 향한 열정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른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뜨거워진다.

위기가정 청소년에서 ‘치기공사’ 꿈꾸는 멋진 청년으로

군 복무 중인 박정환 형제는 위기가정에서 자랐다. 2020년 10월 가정폭력으로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통해 온누리복지재단이 운영 중인 군포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하나로’ (이하 하나로)에 입소했다. 처음 경험하는 단체생활에서 불편한 점이 많았고, 자신이 위기가정에서 분리된 청소년이라는 생각에 위축되었다. 하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도와주는 하나로 교사들 덕분에 쉼터 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다.

어느덧, 박정환 형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는데 문제가 있었다. 꿈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나로 교사들이 박정환 형제와 함께 진로 탐색에 나섰다. 그리고 그의 손재주를 활용할 수 있는 ‘치기공사’라는 꿈을 키우도록 도왔다. 그해 동남보건대 치기공학과에 합격했다. 대학 진학 이후에도 1년 동안 하나로에서 생활하다가 입대를 앞두고 퇴소했다. 하나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증과 건설기계조정사면허를 취득한 게 기회가 돼 강원도 전방 부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하고 있다.

사실 수시전형 입학 원서를 쓰면서도 걱정이 많았다. 대학에 합격해도 등록금을 마련할 길이 요원했기 때문이다.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지원을 받을 수 없었기에 고민이 많았다. 그때 온누리복지재단이 박정환 형제에게 또 하나의 선물을 안겼다. 온소미 장학생으로 추천해서

입학금과 생활비를 지원했다.

온소미 장학금이 참 많은 것을 변화시켰다. 무엇보다 꿈이 있으면 어려움을 헤쳐 나갈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온소미 장학금 덕에 학비 걱정 없이 열심히 공부해서 학교 성적장학금도 받았다. 박정환 형제는 이 모든 변화가 온소미 장학금과 온누리복지재단 덕분이라며 그 사랑을 잊지 않겠다고 했다.

“온누리복지재단을 만나 꿈을 꾸게 되었고, 저의 생각을 표현해도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치기공사’가 되어서 온누리복지재단처럼 저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저와 같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신 온소미 장학사업 후원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로 선생님들과 온누리복지재단 대표이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삶이 버겁고 힘들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생겼다!”

한리아 학생은 2019년 탈북했다. 당시 스무 살이었던 한리아 학생 혼자 한국에 왔다. 낯선 한국 사회에서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았다.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외롭게 느껴졌다. 외로운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울증이 찾아왔다. 부모님이 계시는 다른 친구들과 자신을 자주 비교하면서 우울감이 더욱 깊어졌다.

하루빨리 한국 사회에 적응해야겠다는 생각 뿐이었는데 한국 학생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다. 한국 문화를 잘 몰랐기 때문이다. 혼자 눈물 흘리며 시간을 보내곤 했다. 그때마다 가족들이 더욱 그리웠다.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다.

그 힘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고, 다시 힘내서 살겠다고 다짐했다. 열심히 입시를 준비해서 홍익대학교 섬유미술패션디자인과에 입학했다. 그런데 학비와 생활비가 문제였다. 학교에서 만난 교수님이 그녀의 사정을 듣고 온소미 장학생으로 추천하셨다. 그 교수님이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셨다.

온소미 장학금 덕분에 부족했던 생활비가 채워졌다. 또 비용 문제로 포기하고 있었던 독일에서 열린 ‘통일 비전트립’에도 다녀올 수 있었다. 통일을 먼저 경험한 독일에서 어떻게 통일을 했는지를 배웠다. 그러면서 통일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 전에는 삶이 버겁고 힘들기만 했는데, 통일 비전트립을 다녀와서 삶이 달라졌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북한을 위해 기도했다. 통일 비전트립에서도 남한 청년들과 북한 청년들이 함께 기도하고, 아픔을 나누면서 우리는 한민족임을 다시 한번 느꼈다. 그리고 전공을 살려 통일을 위한 일을 하고 싶다는 새 꿈도 생겼다.

“개성공단이 다시 열린다면 거기서 일하고 싶습니다. 지금 공부하는 패션 디자인을 활용해서 북한과 남한의 스타일을 접목한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고 싶습니다. 온소미 장학금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저와 같은 사람들을 정상적으로 도와주고 싶습니다.”

“저도 누군가의 삶에 선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강예성 학생의 아버지는 중국에서 선교사로 사역하신다. 부모님과 함께 어릴 때부터 중국에서 지냈다. 그런데 강예성 학생이 고등학생 시절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 일이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모른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자신이 엄마 역할을 해야 했다. 사역하시는 아버지를 대신해 동생들을 챙기고, 집안일도 해야 했다. 학업 포기를 고민할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때 하나님이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셨다. 현지 교회 성도들의 도움으로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다.

대학교 진학을 위해 한국에 왔다. 대학교에 입학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시기에 부모님의 도움이 정말 필요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아버지가 한국에 오지 못했다. 강예성 학생 혼자 모든 것을 해야 했다. 선교사인 아버

지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했기에 아르바이트하면서 생활비도 직접 벌었다.

문제는 아르바이트와 공부를 병행하느라 학업에 집중할 수 없었다. 장학금을 신청하려고 했지만 잘되지 않았다.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있는데 학생처 직원이 온소미 장학금을 소개해줘 1년 동안 온소미 장학금을 받았다. 그 덕분에 생활비가 해결됐다.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오로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온소미 장학금을 받은 이후 성적이 많이 향상됐다.

폴란드로 봉사활동을 다녀올 기회도 생겼다. 비용이 만만치 않았는데, 온소미 장학금 덕분에 봉사활동을 다녀올 수 있었다. 폴란드 현지 NGO 기관들과 미팅도 했다. 전공과 관련된 일이라 적극적으로 대화할 수 있었다. 난민 수용소에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교제도 나눴다. 이 특별한 경험이 강예성 학생에게 구체적인 비전을 선물했다.

“저는 개발도상국 아이들과 난민들을 위해 집과 학교, 교육센터를 설계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려웠던 때에 많은 분의 도움 덕분에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누군가의 삶에 선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온소미 장학금 덕분에 하나님의 비전도 발견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온소미’ 장학사업 절차

1. 후원자가 기부하면 온누리복지재단에서 지정 기부서 발급.
 2. 장학생을 추천받은 이후 장학위원회에서 선정 심의.
 3. 대상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후원자에게 사업 결과 보고.
- 후원 문의: 02-3215-3413
후원 계좌: 하나은행 573-910015-23605
(북)온누리복지재단

맛있는 말씀 해설

“...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히 1:1~3)

〈히브리서〉는 유대교 그리스도인에게 보낸 편지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유대교 전통에 해박한 지식으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옛 언약의 중보자들보다 위대하니 결코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고 전한다.

〈히브리서〉 1장은 ‘옛날에’와 ‘마지막 날’로 시간적 대비를 보여주고 있다. 옛날에는 하나님이 여러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옛 언약의 중보자들보다 뛰어난지 여섯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전권을 받은 존재다(시 2:7~8). 상속자를 ‘주권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만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이 곧 예수님의 주권이다.

둘째, 예수님은 모든 세계를 지으신 만물의 창조자다. 예수님은 갑자기 나타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부터 계셨던 분이시다(요 1:1~3).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다른 피조물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천사보다 뛰어나시고(1장), 모세보다 뛰어나시며(3장), 아론보다 뛰어나시다(5장).

셋째, 예수님은 영광의 광채이며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참 하나님이다(요

니라 지속해서 세상을 관리하시고 감찰하시며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다섯째, 예수님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희생 제물이면서 동시에 대제사장이다. 예전에는 수많은 동물로 매년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단번에 희생제물로 드렸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있는 동등한 하나님이라는 의미이다.

〈히브리서〉 저자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약성경을 해석한다. 하나님의 창조 활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히브리인들의 모든 역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 가능하다고 논증하고 있다. 이를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점은 우리의 삶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석이 된다는 사실이다. ‘내 삶에 왜 이러한 상황이 찾아올까?’, ‘나의 인생은 대체로 어디로 흘러가는 것일까?’라고 고민할 때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희생의 측면에서 내

삶을 바라본다면 풀리지 않았던 삶의 고민이 해결된다. 인생의 해답이 되시고, 삶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해석될 것이다.



이강현 목사
(양재A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해석될 것이다.”

1:4~10).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했던 고백이 잠시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다. 하나님께만 사용했던 ‘영광의 주님’이라는 표현을 예수님에게 사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

넷째, 예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불드시는 통치자다. 창조 이후 세상을 방관하는 분이 아

로 회복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사람이 되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새 언약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된다.

여섯째, 예수님은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신 존귀한 하나님이다(시 110:1, 빌 2:6). 예수님이 하나님 아래 앉지 않으시고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선상에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믿음의 경주 완주하는 그날까지

9월 25일~10월 1일

〈히브리서〉 12:1~13:25,
〈잠언〉 1:1~19



으로 영적 침체에 빠질 때 이를 극복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성도가 바라봐야 할 새 언약의 시온산이 어떤 곳인지 묵상하자.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과 같이 성도는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징계의 연단을 통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 성도는 영적 침체를 극복하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러야 한다. 이 세상의 나라는 흥망성쇠를 거듭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약속하셨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을 기억하지 말고, 우리가 받은 새 언약의 시온 산을 생각하며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

묵상포인트 1: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려면 ‘인내’가 필요하다.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인내의 모범은 믿음의 주(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죄의 유혹

묵상포인트 2: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도는 거룩해야 하고, 사랑과 섬김을 지속해야 한다. 하나님 사랑의 절정인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성도는 진정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할 수 있다. 십자가로 사랑을 완성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세상에 보여 줄 삶의 제사가 무엇일지 묵상하자.

▶〈히브리서〉 기자는 수신자들에게 신앙인의 성숙한 삶을 권면한다. 성도는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을 대접하며, 간히고 학대받는 사람을 생각해야 한다. 결혼을 귀하게 여겨 음행과 간음을 멀리하고, 가진 것에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준 인도자들을 기억하며 그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교훈에 끌리지 않도록 마음을 은혜로 견고히 해야 한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 성문(영문) 밖으로 나아가며 항상 찬송의 제사로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해야 한다.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한다. 그러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시며, 그분 뜻을 행하게 하실 것이다.

묵상포인트 3: 〈잠언〉은 지혜 문학으로 인간이 직면하는 다양한 상황과 관계를 총망라해 바른 삶을 선택하도록 권면한다. 〈잠언〉 1장에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무엇인지, 악인의 유혹을 피하라고 강력하게 당부하는 이유

가 무엇인지 묵상하자.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식과 근신함을 주는 책이다. 지혜 있는 자는 이 가르침을 듣고 학식과 지략과 깨달음을 얻는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지만,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아야 하고, 악한 자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한다. 악한 자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폭력과 부정을 저지른다. 잠깐의 이익을 위해 삶을 파괴하는 악한 자들과 동행하지 않는 것이 지혜다.

- 적용을 위한 가이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 예수님을 바라보자. 믿음의 경주에는 ‘순종’과 ‘오래 참음’이 필수 요소임을 기억하자. ▶영적 침체에 빠져 있으면 퇴보하는 인생이 된다. 내가 지금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면, 공동체 지체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자. 영적 침체에 빠진 지체가 있다면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하자. ▶값없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이웃 사랑으로 표현하자. 주변에 어려움 당한 이웃을 위해 기도하면서 아무런 대가 없이 그의 필요를 채워 주며 섬기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삶의 문제 앞에서 세상 지혜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먼저 묵상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의 지혜가 최고 해결책임을 인정하자.

/ 〈생명의 삶〉 편집부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비전을 위해서!

저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주십시오. 저는 간호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원했던 길은 아니었지만, 간호학과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공부해야 할 게 많아서 힘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현재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친구들과 비교하는 마음, 나만 뒤처진 것 같은 열등감 때문에 마음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아직 무엇을 해야 할지, 이 길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보이지 않아서 가만히 쉬어 가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저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지금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려고 합니다. 보이지 않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제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기도해주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비전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비전을 발견하도록 기도해주십시오.

/ 익명의 성도

기도제목 보내는 곳: daa2@onnuri.org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기도에 집중하는 세 가지 방법

“기도시간마다 자주 딴생각이 들어서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도할 때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화공이 신을 만들고 제단사가 옷을 만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기도가 매일의 직업이다.”

마틴 루터가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기본적인 매일의 삶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우선시해야 하는 행위다. 기도에 관한 많은 은혜와 간증을 듣는다. ‘어느 날 1시간 기도했더니...’,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하니까...’, ‘기도의 힘을 경험했습니다’와 같은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를 제외하고 모두가 기도를 쉽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 마치 숨을 쉬듯 쉽게 기도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에게 기도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 30분은 커녕 5~10분 기도하면 더 이상 기도할 게 떠오르지 않을 때가 많다. 왜 그럴까?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기도는 세상의 대화와는 다르다. 기도는 땅이 아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

는 특별한 행위다. 사람들과의 대화에 익숙한 우리는 기도에 어색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어색함을 넘어서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을까?

첫째,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이다. 어색한 관계는 우리에게 불편함을 준다. 어색한 관계에서는 상대방에게 온전히 집중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 어색함 때문에 상대방을 피한다면 그 관계는 더 이상 발

도하는 시간을 많이 확보한다면 잠시 다른 생각을 해도 다시 마음을 바로잡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주변 환경을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이다.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요소다. 깊은 기도를 하고자 한다면 시간과 장소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기도하기 좋은 환경으로 준비해야 한다. 기도를 방해할 수 있는 물건은 처음부터 시야 밖으로 치워 두는 게 좋다. 가

이다. 만약 아직 혼자 하는 기도가 어렵다면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예배를 찾아가는 것도 방법이다. 함께 모여서 하는 기도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을 훈련할 수 있다. 훈련하면서 개인의 자리에서도 깊은 기도로 나아가기를 축복한다.

셋째, 기도제목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가 막히거나 다른 길로 새는 경우는 기도할 게 떠오르지 않아서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다. 평소 기도제목을 적어두고, 그것을 보면서 기도한다면 집중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나의 어떤 기도제목이 응답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자신의 기도제목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도제목도 보면서 중보의 시간을 가진다면 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깊은 기도로 나아가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축복한다.



최재윤 목사
(길공동체)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깊은 기도로 나아가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전하지 못하고 종료될 것이다. 어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상대방과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 때 어색함이 차츰 나아지는 것을 보게 된다. 기도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면 더욱 집중할 수 있다. 일단 기

장 멀리해야 할 물건이 스마트폰이다. 하지만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기도 BGM을 틀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전화나 메시지의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 알람을 끄고 기도를 시작하는 게 좋다.

또한 침대와 같은 편한 자리가 아닌 곳에서 기도하는 것을 추천한다. 기도가 아닌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자신을 보게 될 수도 있기 때문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주도형(Dominance) 사람의 과제!

행동 유형 중에 주도형(Dominance)을 가진 사람이 있다. 이 특징을 가진 사람은 직장에서도 만날 수 있고, 작은 친교 모임에서도 만날 수 있다. 자신의 배우자가 주도형이거나 자신이 주도형을 가진 사람일 수 있다. 주도형을 가진 사람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들의 성향을 잘 알고 이해하면서 소통할 필요가 있다.

‘Discprofile.com’에 따르면 주도형은 결과와 큰 그림을 보는 것을 선호한다. 자신감이 있고, 대담하고 단호하며, 일을 진행하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 다른 성향이 느낄 때는 다소 지시적이고, 요구가 많아서 때로는 무뎌보인다고 느낄 수도 있다. 주도형이 두드러지게 활성화된 사람은 일이나 업무에 관한 실행의지가 높게 나타난다. 일을 추진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을 밟으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극복하고, 결과를 보고자 하는 의욕이 강하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사람에 대한 관심과 배려, 신중함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주기도 한다.

주도형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표를 알려주는 게 필요하다.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이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하자고 제안하는 게 좋다. 목표를 전달했다면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자주 점검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주도형인 사람은 믿고 맡겨줬을 때 자신의 능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다. 자신의 배우자가 주도형이라면 믿고 맡겨주는 연습이 필요하다. 자신의 행동 유형

과 다르더라도 주도형 배우자를 믿고 기다려줘야 한다. 이러한 환경이 조성됐을 때 주도형은 자신의 고유한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다.

주도형은 장황하게 했던 말을 반복해서 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계속 점검하고 질문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장애물이 있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목표가 있고, 자율성이 보장된다면 주도형인 사람은 훌륭하게 주어진 일을 만들어 낼 것이다.

주도형 유형이 불편해하는 것은 목표를 이

자신감도 있어야 할 것이다.

주도형이 주요 행동 유형인 사람은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흥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열심히 목표를 향해 달려가지만, 정작 함께하는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열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선 그들의 마음과 감정에 충분히 귀를 기울여야 한다.

모두 자신의 마음과 같지 않고 유형과 같지 않다.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없을지라도 함께하는 사람은 힘들 수 있다. 행동 유형

은 없는지, 마음은 어떤지 종종 물어보고 들어주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충분히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게 결과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부부 사이에서도 이러한 원리가 적용된다. 부부 중 한 사람에게서 주도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지시적이고, 명령조로 이야기하는 것을 경험한다면 마음이 상할 것이다. 자신의 감정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고, 오직 결과와 목표만 이야기하는 주도형 배우자와 살아갈 수도 있다.

자신이 주도형 행동 유형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지 않은 배우자가 힘들어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자신이 늘 그래왔던 것처럼, 빠른 판단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결과를 이룰 수 있도록 지시한다면 주도형인 자신

과 상대의 관계가 틀어지고 서먹해질 수 있다. 상대의 인격과 마음에 관심을 갖고 결과와 목표만이 아니라 과정을 나눌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주도형 행동 유형을 가진 사람의 과제(요 21:17).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상대의 인격과 마음에 관심을 갖고,
결과와 목표만이 아니라 과정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

루는 과정에서 자신이 통제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주도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환경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다. 통제력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노력에 대한 인정도 필요하다. 업무에만 이용당했다는 느낌이 든다면 주도형 성향은 힘들어할 것이다.

자신이 주도적인 유형이라면 인간관계에서 주도적이지만 다른 유형의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한다.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성향이 다른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신의 고유함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이 다름으로 인해서 생기는 갈등이다. 따라서 주도형 성향의 사람은 의지적으로 사람들에게 관심을 표시하는 게 필요하다. 목표도 중요하지만 사람도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과분한 목표를 이루었으나 주위에 사람들이 남아 있지 않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함께했던 사람들은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다시는 같이 일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결과가 대단하더라도 긍정적인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평소에 주도성을 강하게 표면화해서 살아왔던 사람이라면 이제부터는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는 게 좋다. 힘든 점

두란노 편집자가 추천하는 '놓치기 아까운 책'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의 '백발백중 전도지'



〈최고의 행복〉
두란노 | 5,000원(10개 1세트)

“두란노서원입니까? 온누리교회 전도학교 장로인데예, 온누리교회 전도지를 두란노서원에 맡겨 전 세계로 확산되도록 하고 싶습니다.”

어느 날 두란노서원으로 걸려 온 한 통의 전화 덕분에 지금의 〈최고의 행복〉 전도지가 탄생했다. 그 장로님을 만나기 전에는 솔직히 전도지에 관심이 없었다. 전도지를 전문으로 출판하는 곳도 있고, ‘전도지가 거기서 거기 아닐까?’라는 생각도 없지 않았다. 미팅은 하지만 거절할 생각을 거의 굳히고 만났다. 전화하셨던 장로님은 경상도 사투리가 아주 짙은 데다 전도에 대한 비전이 커서 뭔가 큰 그림으

로 계속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공감이 안 되고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었다.

“저희는 전도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짬을 보는데, 성령님의 강한 역사인지 강청함으로 인함인지 결국 “그 전도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말았다. 그날 이후 정말 관촬은 전도지인지, 전도가 정말 잘 이뤄지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할 겸 ‘온누리전도학교 18기’ 학생으로 등록했다. 그런데 생각하고 상상했던 이상으로 온누리전도학교는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성령공동체였다. 각기 개성은 달랐지만, 복음 전파라는 사명 하나를 붙들고 날마다 기쁨으로 복음의 씨를 뿌리는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었다. 전도의 ‘자’자도 부담스러웠고, 전도는 은사 받은 열심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최고의 행복〉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했더니 아주 쉽고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었다. 정말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들을 골라 데려다 놓은 듯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 순한 양이 되어 순순히 영접하는 것을 보면서 성경 말씀이 떠올랐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께 추수할 밋으로 일꾼들을 보내 달라고 청하라”(눅 10:2b).

정말 추수할 게 너무 많은데, 일꾼이 적다는 말을 온몸으로 체험했다. 또 전도는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행 1:8).

하나님은 〈최고의 행복〉 전도지가 두란노서원을 통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셨던지, 순식간에 세계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도록 선교사님들과 현지인들을 모아 주셨다. 마치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을 탄 것처럼 아주 짧은 시간 안에 25개국 언어로 탄생시켰다. 이 지면을 빌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전도지 번역을 위해 애써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사를 드린다.

〈최고의 행복〉의 기본구조는 다음과 같다.

1.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창조).
2. 사람의 죄와 그 결과(타락).
3.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구속).
4. 사람이 해야 할 일(회복).
5. 교회로의 인도.

〈최고의 행복〉이 ‘백발백중 전도지’라고 불릴 만큼 쉽고 효과적인 이유는 이처럼 ‘창조-타락-구속-회복’이라는 복음의 액기스만 담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상자가 편안하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우선 스토리텔링 식으로 되어 있어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간결하면서도 복음의 핵심이 모두 들어 있다. 5분 안에 전도

할 수 있고, 이야기별로 그림(아이콘)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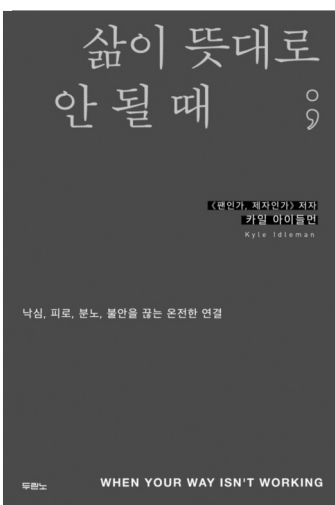
〈최고의 행복〉 전도지의 가장 큰 특징은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복음의 뼈대만 붙잡고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이야기하듯 전하면 어느새 영접기를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눈이 침침한 어르신이나 주의력이 약한 아이들에게는 전도지에 제시된 아이콘만 가지고도 충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전도지 끝에는 그리면서 전도할 수 있는 효과 좋은 도표도 수록되어 있다. 이렇게 효과적이고, 쉬운 전도지가 가족과 친지, 주변인들의 전도를 위해 불철주야 기도하는 이들의 손에 꼭 들려져 영혼 구원의 천국 잔치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 전도지 〈최고의 행복〉은 2011년 6월 14일 故 하용조 목사님의 부탁으로 온누리전도학교에서 만들기 시작해 2012년 가을 〈당신은 행복하십니까?〉로 탄생했다. 이것이 2018년 5월 이재훈 목사님의 도움으로 〈최고의 행복〉으로 이름을 바꿔 두란노서원에서 출간했다. 현재 25개국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의 복음 전도지로 사용되고 있다. 온누리전도학교에서는 〈최고의 행복〉을 활용한 전도법 전수를 위해 매년 봄, 가을학기 온누리전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 남희경 부장(두란노 출판부)

두란노 신간

삶의 문제 푸는 열쇠



〈삶이 뜻대로 안 될 때〉
Kyle Idleman 저 | 두란노 |
16,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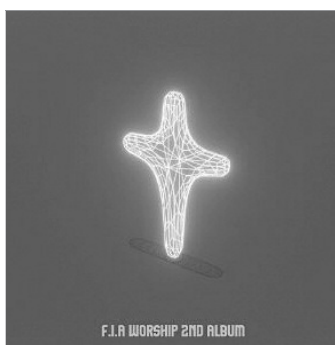
수님께 붙어있으면 삶의 지혜를 발견한다. 이 책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지럽게 하는 문제들을 스스로 진단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삶의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열쇠는 ‘예수님께 붙들린 삶을 사는 것’이라고 권면한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을 때 비로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과 관계를 점검하고 회복하기를 원하는 성도,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은 성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오늘의 hymn(Hymn)

‘찬송가, 찬가’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피아 워십 곡

수많은 말과 시선이 그리스도인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살면서 끝없이 후회하고, 의심하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기도할 때 세상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할 수 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때 그분 안에서 바른길을 걸을 수 있다. 이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만 예배하고, 기도할 때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는 멜론, 벅스, 지니, 유튜브 뮤직 등 모든 음악 사이트에서 들을 수 있다.

“예배합니다 작은 모습으로 주님만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작은 소리라도 주의 뜻 알기 원합니다.”

피아워십의 찬양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는 복음의 기쁨과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찬양을 들을수록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되고, 경배하게 된다. 세상은 끝없는 갈등과 후회, 염려로 가득하다. 이 세상에서 진리를 분별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세상에



찬양듣기

온누리와 함께하는
나부터 탄소중립!일상에서 탄소 배출 줄이기
‘교통수단 편’

가을이 찾아왔다. 살랑이는 가을바람을 만끽하며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이 있다. 바로 등하교나 출퇴근 길에 자동차 대신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나 도보로 이동하는 것이다. 가을 정취도 느끼고, 환경도 보호하고, 건강도 챙길 수 있어 ‘일석삼조(一石三鳥)’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공하는 교통수단별 평균 탄소배출량을 살펴보면, 1km 이동 기준으로 자가용 210g, 버스 27.7g, 지하철 1.53g, 자전거 0g이다. 12km를 대입해서 계산해보면 자가용을 타고 이동하면 매일 2.5kg 정도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그런데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 330g, 지하철을 타면 18g을 배출한다. 자가용을 타고 이동하는 것보다 버스는 2.2kg, 지하철은 2.5kg이 덜 배출된다. 이동할 때 탄소배출량을 확인하는 습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교통수단별 탄소배출량은 ‘탄소발자국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다(kcen.kr/tanso/intro.green).

SNS청년부 창립 10주년 기념 후원 캠페인

NGO 더멋진세상에 모기장 1천3백장 구매 비용 후원

SNS청년부가 창립 10주년 기념 후원 캠페인을 했다. SNS청년부 소속 청년 450여 명이 이 캠페인에 참여해 총 9백1십만 원을 후원했다. 후원금으로 ‘말라리아 예방 모기장’ 1천3백장을 구매해서 아프리카 우간다 팔로리나 정착촌에 거주하는 남수단 난민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김광동 장로(NGO 더멋진세상 대표)는 “말라리아로 생명을 잃어가는 난민들을 위해 후원금을 전달해 준 SNS청년부 청년들에게 깊이 감사하다”면서 “지금처럼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도우며 세



SNS청년부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NGO 더멋진세상에 ‘말라리아 예방 모기장’ 1천3백장 구매 비용을 후원했다.

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 / 홍하영 기자

아빠를 위한 맞춤전도 ‘아빠 캠핑 가자’

10월 8~9일 강원도 춘천 왕터리조트 카라반존

전도사역본부에서 아빠를 위한 맞춤전도 ‘아빠 캠핑 가자’를 개최한다. 10월 8일(일)부터 9일(월)까지 남춘천 왕터리조트 카라반존(강원도 춘천시 남면 박암리 9-1)에서 진행된다.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 중에서 아빠를 전도하고 싶은 성도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하면 된다.

문의: 카카오톡채널 ‘아빠캠핑가자’

사회선교본부 사역자 모집

다문화사역팀,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팀

사회선교본부에서 다문화사역팀과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팀 사역자를 모집한다. 온누리교회 성인공동체에 소속된 성도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상시 모집한다.

다문화사역팀은 사회선교본부에 전화로,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팀은

김희성 팀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지원하면 된다. 다문화사역팀에서는 다문화 가정을 돌보고,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팀에서는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정을 돕고 있다.

문의: 사회선교본부(02-3215-3434) 김희성 팀장(010-6214-5432)



이야기 기·도·제·목

- 9월 24일(주일) ·러브소나타 ‘미야기’를 통해 일본 땅에 복음이 재건되고 하나님께 나오는 일본인이 성령 충만하고 믿음의 사람이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 9월 25일(월) ·이재훈 담임목사님에게 영적 강건함을 더해주시어 바른 일정 속에 영육의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전하는 말씀에 성령으로 거듭 부으사 예수님의 사랑이 강력하게 선포되어 복음을 깨닫고 돌아오는 일본인이 많게 하시기
- 9월 26일(화) ·설교 통역과 결신 초대 순서를 맡은 후쿠자와 마키도 목사님에게 성령님이 지혜를 부어주시어 통역이 정확하고 매끄럽게 진행되고 듣는 일본인들을 결신으로 초대하도록 탁월한 언어와 영적 능력이 함께하기를
- 9월 27일(수) ·러브소나타 출전전(루나, 크루스&하다쉬뮤직, 조혜련집사, 김영미 권사)의 공연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일본인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으로 채워져서 영적 회복이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 9월 28일(목) ·결신 특수를 공연하는 ‘사랑채배’ 위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일정에 어려움이 없기를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본을 보이므로 일본인들에게 도전과 감사가 남치는 은혜가 있기를
- 9월 29일(금) ·Blessing Ceremony 순서에 성령님이 기쁨의 영을 부어 주셔서 일본족 찬양팀과 한국족 찬양팀이 조화를 이루어 함께 인도하고 러브소나타에 참석한 모두가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되기를
- 9월 30일(토) ·참석했던 일본인들의 마음에서 복음이 시작되어 그 땅에 선교의 역사가 새롭게 쓰이고 300명의 순교의 피가 흘렀던 ‘미야기’ 땅에 복음의 열매가 맺히기를

NGO 더멋진세상, 어린이 영양지원 캠페인

모리타니와 말라위 영양실조 아동 지원

NGO 더멋진세상이 모리타니와 말라위 영양실조 아동을 위한 ‘어린이 영양지원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캠페인에 동참하고 싶은 성도들은 NGO 더멋진세상 계좌(하나은행 573-910009-09905)로 후원금을 보내면 된다. 어린이 영양지원 캠페

인 후원금은 모리타니와 말라위 어린이(6개월~15세) 470여 명에게 영양죽, 고단백 영양가루, 건강검진을 통한 약품 지원 등에 사용한다. 자세한 내용은 NGO 더멋진세상 홈페이지(betterworl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2-2271-2246

온라인커뮤니티 문화전도집회 ‘La Vie(인생)’

10월 23일 오후 7시 JCC아트센터 콘서트홀

온라인커뮤니티에서 문화전도집회 ‘La Vie(인생)’을 개최한다. 10월 23일(월) 오후 7시 JCC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열린다. 최정주 권사(아트앤뮤직큐레이터)가 ‘인생’을 주제로 한 작품을 소개한다.

문화전도집회 ‘La Vie(인생)’에 참여하고 싶은 성도들은 구글폼(

QR 참고)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10월 11일(수)까지 온라인커뮤니티 계좌(하나은행 573-9100020-43305)로 티켓 비용을 입금하면 된다. 티켓 비용은 3만 원(2인)이다.

문의: 카카오톡채널 ‘la vie’



기도의 부흥을 경험하라!

9월 19~21일 대전온누리교회 ‘말씀사경회’

대전온누리교회가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창립 20주년 기념 말씀사경회 ‘기도의 부흥을 경험하라’를 개최했다. 성도 350여 명이 참석했다. 말씀사경회 ‘기도의 부흥을 경험하라’에서는 강부호 목사(양재온누리교회 담당)가 19일(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20일(수) ‘사랑의 고백처럼 기도하라’, 21일(목)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라’를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다.

강부호牧사는 “성도들의 기도 수준이 높아질 때 교회의 영성이 상승한다”면서 “성령님의 일하심에 관심을 가지고, 참된 기도를 드리며, 영적으로 성장하는 대전온누리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은 대전온누리교회는 ‘선교사 200명을 파송하는 선교적 교회’를 새 비전으로 세우고, 이를 완수하기 위하여 날마다 영적 전진을 하고 있다.

232기 순장학교 참가자 모집

232기 순장학교가 개강한다. 10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 매주 일요일 오후 4시 시온홀, 양재온누리교회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드림홀에서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서빙고 10월 1일까지, 양재 10월 7일까지 각 공동체 총무

에게 하면 된다. QT스쿨과 일대일 제자양육자반 수료자, 공동체 추천자가 대상이다. 회비는 서빙고 5만원(부부, S브릿지공동체 소속 성도 4만 원). 양재 3만 원이다.

문의: 서빙고 (010-2307-5547) 양재 (010-4172-0850)

9월 세례자

■서빙고	허 규 박승혜	조승준 210422	이동민 000827
강민성 870415		조현준 이한나	진하은 041125
권보민 580506	■양재	진승민 210611	허충범 000101
가재인 901220	박윤희 910907	진성범 송가영	입교
김영분 730420	설동열 611225	채연우 221007	고지유 031215
이광섭 590110	이영준 670429	채성석 최민영	김준영 990609
최광선 710814	최주철 690727		백재혁 010923
입교	유아	〈대학청년〉	정유리 011005
김수은 031109	김유현 220915	■하늘	
이서진 020813	김상연 서예원	최정은 990717	
유아	이 레 201213	입교	■J4U
강시연 220730	이호철 강소미	강하은 950328	양정민 951202
강준호 김소윤	이리안 201102	김유은 041117	윤고는 900520
김주원 211129	이홍일 김지혜	서제원 961212	장 미 890216
김정한 배은영	이 안 220427	신찬미 040325	정상락 931207
라 온 161230	이 명 성지원	정명훈 950523	채지훈 890322
라온태 전인순	이지호 220812	황규연 020121	최용원 900504
차주원 220712	이재원 임효리	■허브	입교
차신웅 이현선	전도준 230128	강현지 990622	김세리 920509
하예원 221027	전우경 서정인	김하진 021224	

■ 은혜교회에서 온 편지



/ 김성권 목사(제3612부대 은혜교회)

크고 풍성한 하나님의 선물!

5월의 마지막 날, 온누리교회 강남D공동체 김창호 목사님과 윤원재 집사님께 전화를 받고 그때부터 올여름 은혜교회 아웃리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강남D공동체의 두 달여 동안 수고와 헌신 덕분에 이번 아웃리치는 은혜교회에게 정말 크고 풍성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아웃리치를 준비하면서 강남D공동체에서 가정 당 한 명씩 장병들을 연결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장병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은혜교회에서도 매일 저녁 온누리교회와 아웃리치, 예배에 참석하게 될 형제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예배 회복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은혜교회를 위해 강남D공동체에서 준비한 선물보따리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우선 100여 명의 강남D공동체 식구들을 위해 보조의자를 준비하는 것도 저희에게는 선물이었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든든한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병들을 위해 준비해주신 성경책과 쿠키 세트, 레몬에이드가 감동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오랜 기도제목이었던 음향장비세트를 준비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강남D공동체 찬양팀과 장병들

이 함께했던 은혜 가득한 찬양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김창호 목사님의 명쾌한 설교와 장병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예배를 더욱 풍성하게 했습니다.

아웃리치가 끝나고 은혜교회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배 참석인원이 50명 넘게 꾸준히 유지되고 있고, 찬양 시간에 무뎠던 형제들이 이제는 박수치고 때로는 합성을 쏟아내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전도대상자였던 형제들 대부분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가슴속으로 기도해오던 기도제목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어서 목회자인 저에게는 이 부분이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종병 형제들도 이번 아웃리치에서 받은 은혜가 큼니다. 형제들이 전하는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이 지면을 빌려 나누고 싶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며 정말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오죽하면 말년 병장도 ‘이 예배는 드려보고 제대하고 싶다’ 할 정도로요. 실제로 와서 보니 더 감사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김휘원)

*제3612부대 은혜교회의 군종병 형제들의 더 많은 간증은 온누리신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남양주 별내다락방 아웃리치 간증



/ 오효수 집사(남양주온누리교회)

남양주M센터 이주민 예배에 참석하는 인도와 네팔 형제자매들은 바다를 무척 좋아한다. 살았던 곳이 산악지형이거나 바다와 거리가 멀어서 평생 바다를 가본 적 없는 친구들이 많다. 그 사정을 잘 아는 남양주 별내다락방이 그들이 바라던 바다로 함께 떠나기로 했다.

남양주M센터가 설립되기 전부터 남양주온누리교회 많은 다락방이 이주민들의 예배와 식사를 오랫동안 섬겼다. 이번에도 이주민 형제들에게 좋은 경험을 선물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아웃리치에 참여했다. 그런데 강릉에 도착했더니 안타까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다. 태풍 카눈의 여파로 파도가 높아 해수욕장 입수가 금지된 것이다. 모두 일하는 손길을 잠시 멈추고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했다.

“날씨가 좋아져서 우리 모두 바다에서 즐겁게 놀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일 아침 아웃리치 분위기가 활기차게 바뀌고 준비에 빈틈이 없어졌다. 아웃리치 예배 특순으로 별내다락방 식구들은 ‘예수마쉬’를 불렀다. 재밌는 레크리에이션도 했다. 생일용 고깔을 얼굴에 쓰고 작은 구멍으로 공을 찾으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바다에서

며 더듬거리는 서로의 모습을 보며 크게 웃었다. 마지막에는 풍선 기둥을 만들어 모두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얼마 뒤 해수욕장이 열렸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기적 같은 일이었다. 우리 모두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문진 해수욕장으로 달려갔다. 높은 파도 때문에 수영을 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형제자매들의 얼굴이 밝았다. 어쩌면 저렇게 놀이공원에는 온 아이들처럼 기뻐할 수 있을까? 파도가 발에 닿기라도 하면 기분 좋은 소리를 질렀다. 바다가 열려서 참 다행이었다. 그토록 바라던 바다에서 모두가 행복한 추억을 만들었다.

조국을 떠나 가족들과 헤어져 일하며 살아가는 외국인 형제자매들의 삶이 고단하다. 우리의 방문이 그들의 삶에 잠시나마 달콤한 휴식이 되었으면 좋겠다.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만난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이 생각났다. 그 사랑이 바다에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연합 아웃리치팀과 후원해주신 모두에게 전해지기를 소망했다.

■ 부천 차세대 아웃리치 간증



/ 오성민 코치(부천온누리교회 초등2부)

경북 문경 산양침례교회는 70년 역사가 있지만, 중고등학생 2명, 초등학생 1명밖에 되지 않아서 차세대 예배가 없다. 지난해 11월 하재욱 목사님이 부임하신 이후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전도해서 주일학교를 만들고 싶어 하셨다. 그 소식을 듣고 부천온누리교회 초등부 교사들이 산양침례교회로 아웃리치를 가기로 했다. 한 명이 오더라도 그 영혼을 위해 마음을 다해 여름캠프를 열어주자는 마음으로 준비했다. 목사님께 잘 말씀드려 아웃리치를 가기로 했다. 우여곡절 끝에 부천 초등부 김가희 전도사님과 교사 6명, 자녀 5명 등 12명이 문경 땅을 밟았다. 초등부 친구들이 산양침례교회 성도님들께 쓴 편지로 교회를 장식했다. 주일 오후 예배에서 초등부 친구들이 위임 특순을 했다. 산양교회 성도님들께 차세대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를 보여드렸다. 준비해 간 떡을 선물해드리고,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어 드렸더니 많은 성도님이 감동하고 마음의 문을 여셨다.

아웃리치 둘째 날 아침, 우리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올까?’, ‘준비한 프로그램은 다 할 수 있을까?’ 기대하면서도 걱정하는 마음으로 여름캠프를 준비했다. 산양침례교회에서

산양침례교회에서 온
기쁜 소식

유일한 초등학생 서현이가 친구 다희를 데려왔고, 문경 지역 타 교회 아이들 5명, 교회 인근에 사는 친구까지 총 11명이 왔다. 다음 날에는 산양면 지역의 또 다른 아이들까지 22명이 참석했다. 전날보다 정확히 두 배 많은 숫자였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렸다.

아이들이 찬양을 배우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다. 차세대들이 입술과 온몸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레크리에이션, 신나는 물놀이, 피자 파티를 하면서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온 교회에 넘쳐났다. 점심식사 준비를 도와주러 오신 성도님들도 교회에 아이들이 많아서 즐겁고 행복해하셨다. 아웃리치를 마치고 산양침례교회로부터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열세 명의 아이들이 모여 주일학교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이었다. 할렐루야! 이렇게 빨리 열매를 맺게 하시다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에 우리 모두 크게 놀랐다. 산양침례교회에 주일학교가 잘 정착하고 부흥하기를 기도한다. 이 모든 것을 인도해주시고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

■ 온누리전도학교 수료 간증



/ 박성일 성도(온누리전도학교)

지난 3월 12일 예배당으로 올라가는데 ‘전도’라는 글씨가 적혀있는 전단지지를 보고 그냥 지나쳤다. 4일 뒤 새벽예배를 마치고 아내와 예배당을 내려오는데 다시 그 전단지가 눈에 들어왔다. 온누리전도학교 전단지였다. 집에 돌아와 온누리전도학교에 등록하려는데 순단체대화방에 순장님이 “나는 등록했으니 함께 하자”며 그 전단지를 올리셨다. 그걸 보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등록했다.

그런데 온누리전도학교 첫날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말씀 암기와 정신없이 숙제를 내셨다. 포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만 다행히 나에게 동역자인 아내가 있었다. 아내가 “같이 도와줄 테니 해봅시다”라고 말해주었다. 그래서 출퇴근길에 함께 5분 전도 기본전문을 틀어놓고 암기했다. 그렇게 2주가 지나고 암기한 내용이 머릿속에 차츰 들어왔다. 또 매주 온누리전도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가족들에게 복습했다. 그러는 사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아내가 나보다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 은혜를 주변에 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우리 부부가 함께 훈련을 치게 하셨다.

진정한 인생 역전

하나님이 9주 차에 놀라운 졸업 선물을 주셨다. 군대에서 세례받고 예배만 드리던 큰아들과 고등부까지는 눈물 흘리며 기도했는데 교회 선생님께서 받은 상처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작은아들이었다. 그런데 내가 〈최고의 행복〉 전도지를 복습하는 것을 큰아들이 옆에서 보고 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졌다. 작은아들에게는 배운 내용을 한 번만 들어 달라고 했더니 오히려 “아버지! 그렇게 접근하시면 요즘 애들 다 도망가요!”라며 젊은 친구들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가르쳐 줬다. 전도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동안 아들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진 것 같다. 두 아들이 지난 5월 21일 SNS 청년부에서 예배를 드렸다. 이 놀라운 일을 야구로 비유하면 하나님이 9회말에 우리 가정이 만루 홈런을 칠 수 있게 하신 것 같았다.

세상에서 인생 역전이란 말을 많이 한다. 진정한 인생 역전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함으로만 가능하다고 믿는다. 나를 살리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뗏뗏하고 올바르게 전하는 사명으로 살기를 기도한다.

선교지에서 온 편지

“구원과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카와카미 유스케 목사
(광염그리스도교회)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곧장 일본에 대한 사명을 받았습니 다. 하나님이 저에게 일본 목회자로 살면서 일본에서 뼈를 묻 으라는 마음을 주셨 습니다. 하나님은 제 가 이 사명을 감당하 도록 중단했던 학업 을 다시 시작하게 하 셸고, 햇볼트리니티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에서 공부하게 하셨습니다. 당시 선교학 교수로 재직 중이셨던 타카미자와 에이코 목사님과 일본인 교우들과의 만남을 통해 자연스럽게 일본을 위해 기도하며 일본 선교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믿음과 신학적 소양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아시기에 다시 한번 한국어로 3년 동안 신학 공부를 하게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인 아내를 만나 가정을 이루었고, 서울광염교회에서 교역자로 섬기며 목회와 선교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서울광염교회에서 사역하던 2011년 3월 11일, 일본에 동일본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사상자가 2만여 명이나 되는 큰 재난이었습니다. 그때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 재난구호팀의 일원으로 현재 제가 사역하는 일본의 미야기현의 미나미산리쿠(南三陸)에서 봉사했습니다. 약 1천여 명의 주민이 쓰나미로 목숨을 잃은 곳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 사역하는 중에도 이 마을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지, 뼈를 묻어야 할 마을임을 기도를 통해 확신했습니다.

2017년 1월 15일, 일본 미야기현에 일본 광염그리스도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께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첫 예배 장소로 정

해주셨던 곳은 지진 당시 마을 주민들의 대피소로 쓰였던 마을체육관의 자그마한 회의실 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첫 예배부터 마을 주민 세 명을 보내주셨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은 세례자 여덟 명과 구도자 열다섯 명이 함께 예배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하면서 더욱 절실하게 깨닫는 것은 ‘선교는 성령님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예배 장소를 준비해주시고, 예배자들과 구도자들을 보내주시고 채워 주셨습니다. 쓰나미로 주택과 가족을 잃고 낙심과 좌절 속에 있던 주민들에게 찬양과 예배가 위로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었습니다. 자진해서 하나님을 믿고, 세례받고 싶어 하는 영혼들이 생겨났습니다. 함께 성경을 공부하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러브소나타가 17년 만에 다시 이 지역에서 개최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라는 기쁨의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일본 성도님들이 러브소나타에 참가하면 신앙이 성장할 것이고, 구도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계기가 될 거라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일본의 그 어떤 지역보다 전도와 교회 개척이 어렵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일본의 동북지역은 쓰나미로 인해 오히려 전도의 문이 열렸고, 일본에서 유일하게 교회가 늘어난 곳입니다. 쓰나미 이후 수많은 크리스천이 지원 물품을 들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준 덕분에 주민들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이제는 먹는 빵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한 이곳에서 러브소나타를 개최해주시고, 일본인들이 찬양과 말씀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도록 기도와 물질,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온누리교회와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러브소나타 ‘미야기’를 통해 구원의 역사와 일본 교회의 부흥이 뜨겁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권사칼럼

그 중요한 ‘돕는 배필’의 역할



한은경 권사
(두란노어머니학교 이사장)

가정에서 여자들이 건강한 부부관계와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실 때 아내를 남편의 ‘돕는 배필’로 부르셨다. 아내는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 돕는 배필의 의미를 잘 알고, 그 역할을 해야 한다.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남편을 바라보는 시각부터 달라져야 한다.

부모, 특히 한 가정의 권위자인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는 한 사람의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아버지로 인한 상처는 내면에 깊은 수치심을 심어주기 때문에 늘 열등감에 시달리고, 평강이 없으며,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한다. 하나님과의 사이에서도 친밀감보다 무서운 하나님, 멀리 계시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새겨지게 된다. 가장 큰 문제는 여성의 경우 남편을 바라보는 시각이 왜곡될 수 있다. 남편도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왜곡될 수 있다. 이 잘못된 시각이 결혼생활을 어렵게 하는 큰 원인이 될 수 있다.

〈창세기〉2장 18절에서 하나님이 아내를 남편의 돕는 자로 세우셨다. 그런데 ‘돕는다’는 말을 많이 오해하고 있다. ‘돕는 배필’이라고 말하면 많은 여성이 의아해한다. “우리가 조연이란 말입니까?”, “뒤치다꺼리나 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란 말인가요?”라고 반문하기도 한다. 그러나 성경에서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로 쓰인 ‘에제르(ezer)’라는 단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이라는 의미다.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연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돕기는 어렵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돕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성을 더욱 정교하고, 섬세하게 만드셨는지도 모른다.

남성을 바라보는 잘못된 시각, 상처와 왜곡된 문화로 인해 실제 부부관계에서 돕는 배필의 역할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우선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아내는 아버지에게서 받지 못한 사랑을 남편에게서 채우려고 한다. 돕는 배필이 되기보다 ‘바라는 배필’이 되어서 무엇인가 해주기를 기대하고, 그 기대를 채워주지 않으면 배우자를 포기하는 ‘포기한 배필’이 되기도 한다.

또 잘못된 남성 우월주의 편견으로 늘 남편의 무관심과 학대 속에 있는 아내들은 자신의 꿈을 잃은 채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된다. 그로 인해 아내들은 자아실현의 욕구를 포기한 채 자녀들에게 집착하게 된다. 이 같은 상황이 악화될수록 부부는 몸은 한 공간에 있지만, 마음은 분리된 정서적 이혼 상태에서 살게 된다. 그러다 자녀들이 성장해서 집을 떠나면 두 사람의 관계가 급속히 악화되고, 결국 이혼으로 치닫는 일이 발생한다. 요즘 황혼 이혼이 급증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 있다.

하나님은 아내를 ‘돕는 배필’로 지어주셨다.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면에서 남편과 아내는 동등하다. 사도 바울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표현했다. 이것은 절대로 남편이 우월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공동체의 영적인 질서가 있다는 뜻이다. 가정은 하나의 시스템이다.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 질서다. 자유도 중요하고, 평등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질서와 창조의 질서가 유지될 때 진정한 자유와 평등을 누리며 살 수 있다.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권위를 세워주는 게 돕는 배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돕는 배필이야말로 진정한 창조 질서의 회복이다.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사랑받는 아내가 될 것이다.

신앙에세이



최성민 목사
(SNS청년부, 대학청년본부장)

SNS공동체가 첫 예배를 드리고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지난 9월 10일(일) 창립 10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SNS는 ‘Salt and Shine’이라는 뜻이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달려온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감사할 일이 가득하다.

서빙고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시작된 SNS공동체 예배는 비전홀을 거쳐 지금은 본당에서 예배할 정도로 큰 부흥을 경험했다. 물론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며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시기도 있었다. 크고 작은 어려움도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정금같이 빛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매주

깨닫고 있다.

하나님은 지난 10년 동안 SNS공동체에게 부흥이라는 선물을 주심과 동시에 숙제를 주셨던 것 같다. 우리를 한국에서 손꼽을 정도로 많은 숫자가 모이는 청년공동체가 되게 하셨다. 한편으로는 많은 숫자에 머무르지 않고, Missional(선교) SNS 청년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에 도전을 주는 사명을 주셨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인원이 모이는 공동체가 될까?’라는 것은 우리의 고민이 아니다. 1백 명이 모이든, 1천 명이 모이든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에 연연하지 않는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겸손이 언제나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 공동체 이름 그대로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이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 그 사명의 길을 역지로 가는 게 아니라 즐거운 헌신과 순종의 기쁨으로 걸어 나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자칫 빠지기 쉬운 교만을 경

예수 바보들의 공동체

계하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Missional SNS 청년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고 기대한다.

지난 10년이 뜨거운 예배를 준비했던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10년은 예배의 열기를 열방과 낮은 곳으로 전하는 선교 열정을 불태우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한다. 예배와 선교가 조화를 이루고, 이 시대 청년공동체의 대안이 되고, 사도행전적 공동체가 되는 게 우리의 비전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 사랑만을 자랑하며 열방 가운데로 나아가는 예수 바보들의 공동체다. 말씀이 이끄는 대로 겸손한 순종과 온전한 거룩으로 무장하고, 〈사도행전〉1장 8절의 사명을 따라 성령의 권능과 함께 열방을 향하는 SNS공동체가 되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다.

SNS공동체 10주년 감사예배에서는 지난 10년을 축하하는 행사보다 생명을 나누는 ‘우간다 남수단 난민들을 위한 모기장 기부행사’를

했다. 10주년 감사예배에 참석한 인원이 1천 3백 명이었는데 놀랍게도 모기장 1천 3백 개가 모아졌다. NGO 더멋진세상을 통해 우간다에 모기장을 보내게 되었다.

나는 SNS공동체 담당교역자로서 생명을 살리는데 앞장서는 청년들이 정말 자랑스럽다. 나도 이렇게 자랑스러운데 하나님은 SNS공동체를 더욱 자랑스러워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모습이 지난 SNS공동체가 걸어온 여정이고, 앞으로 걸어갈 여정이 될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 뜨겁게 예배하는 공동체, 선교에 불타는 공동체로 존재하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곳이라면 낮은 곳 더 낮은 곳을 향해 주저하지 않고 전진하는 예수 바보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한다.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가 지난 10년 동안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실 SNS공동체가 되도록 끊임없는 기도와 격려를 부탁한다.

서빙고 02.79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분당 2부 오전 11:00 분당
3부 오후 1:00 분당 4부 오후 3:0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비전홀
3부 오전 11:30 분당, 비전홀, 두란노홀
4부 오후 1:50 분당, 비전홀
5부 오후 4:00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00 분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2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열방예배
매주 목요일 오후 7:20 두란노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매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담당: 오은규 목사
문의: 정성민 전도사(010-9496-7051)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김우용 대표(010-5395-2319)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중수 팀장(010-7303-1603)

Love My Life 예배(사별자모임)
비대면모임: 매주 화 오후 7:30-8:30(Zoom)
대면모임: 매주 토 오전 11:00~오후 2:00
문의: 박윤애 팀장(010-2771-007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1부예배(사랑부) 오전 9:00(발달장애인 6세~18세), 비전홀B
문의: 이은일 목사(010-3646-7994)

2부예배(예수사랑부) 오전 11:20(발달장애인 대학청년), 비전홀B
문의: 김병철 목사(010-9289-3927)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김상호(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40 경찬홀
문의: 02-3215-3707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101호 / 러시아어 주일 13:00 선교관 301호 / 네팔어 주일 14:00 선교관 202호 /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호 / 페르시아어 주일 11:00 Acts29 Hall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B1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30 303 / 캄보디아어 주일 11:00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202 / 필리핀어 주일 14:00 B1 Onnuri Hall / 태국어 주일 14:00 4F Manna hall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1:00 301 / 중국(청장년) 주일 11:00 4F Manna hall, 다문화 꿈팡 주일 11:00 1F Startree Academy / 다문화 파워웨이브 주일 11:00 305 / 다문화 예꿈 주일 11:00 B1 Dream Kids / 대학청년부 주일 12:30 305 / 인도네시아어 주일 16:00 스타트리협동조합 / 우즈베키스탄어 주일 14:00 304 / 아랍어 주일 12:00 2F Library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31-8048-9446)
캄보디아어 주일 11:00 703호 / 미얀마어 주일 11:00 706호 / 러시아어 주일 14:00 703호 / 몽골어 주일 19:00 706호 / 다문화 파워웨이브 토요주일 14:00 703호 / 다문화 꿈팡 주일 11:00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네팔어 주일 11:00 2센터 202호 / 캄보디아어 주일 11:00 301호

평택M센터(031-651-1702)
열방예배 주일 13:30 4층 열방홀 / 몽골어 주일 11:00 2층 분당 / 파워웨이브 주일 11시 4층 열방홀 / 다문화 꿈팡 11:00 2층 차세대예배실

남양주M센터(010-3937-3927)
열방예배 주일 11:00 301호 / 캄보디아어 주일 11:00 304호 / 힌디어 토요일 20:00 301호 / 네팔어 토요주일 20:00 304호 / 다문화 차세대 주일 13:00 306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오후 4시 / 신관 누리홀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차세대사역본부 수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수요일 오전 9:30-10:20
장소: 서빙고 콘서트를, 양재 온유홀
문의: 02-3215-3523
양재(02-570-7553)

Acts29비전빌리지 서를 운행
시안체플예배시간: 11:30~12:30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

마리아행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성사역 02-3215-3227

한터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분들을 위한 공동체
일시: 매 주일 오전 10:00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문의: 02-3463-9686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B102
문의: 홍숙의 권사(010-3003-5910)

남대문희망공동체 예배
쪽방촌 주민, 노숙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
매주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용산구 후암로57길 9-3
문의: 010-2495-2319

군선교 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선교관 101호
문의: 군선교팀(02-3215-3214)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님 환영

온누리세라핌합창단 단원 모집
대상: 초1~중1(타캠퍼스, 타교인 지원 가능)
연습: 매주 토요일 오후 1~4시 / 첫째·셋째 주일 오후 1시 30분~3시
장소: 서빙고 성가대실(지하 1층)
지휘: 최영은 성가사
문의: 010-8285-6435

제10회 진새골 명품가족캠프 모집
일시: 10월 7일 오후 2시~9일 오후 4시(2박 3일)
장소: 진새골 사랑의집(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
대상: 하나님의 명품 가정 만들기를 원하는 가정(30가정 선착순 모집)
회비: 30만 원(5세 이상 자녀 1인당 5만 원 추가)
문의: 02-444-2212, 010-5299-1917

두란노서원 채용 공고
모집: 분야별 개발자(프로그래머) 2명, 두플러스팀 앱/웹 디자이너 1명
형태: 정규직 (수습 및 사용기간 3개월), 주 5일 근무(주 35시간)
지역: 서울 서빙고동
마감: 9월 30일 토요일까지
접수: <http://www.duranno.com/recruit>

양재 02.57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사랑홀
일요주일예배(사랑홀, 드림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저녁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 오후 10: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9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30, 하용조 기념홀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Vine 중등1~고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
고등부: 교육관 온유홀(A동 2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꿈팡2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 차세대 14:00 예배
예꿈3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꿈팡3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0: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영어 차세대예배
Youth Service 11:00 도곡1교육관 기쁨홀
Kidzone 10:30 도곡2교육관 기쁨홀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4:00 예배(청년부)
갈렘청년부 도곡1관 기쁨홀

사랑부 예배
주일 오전 9:00(발달장애인 6세~18세), 11:20(발달장애인 대학청년) 비전홀B

문의: 김병철 목사(010-9289-3927)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김종균 목사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053-2179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공동체
매 주일 14:00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러방핸드
문의: 김은지 권사(010-3285-1726)

CMN 시온팀 동역자 모집
모집: 치료 외
사역: 여름 해외 아웃리치 및 매월 넷째 주일 안산M센터 의료사역
문의: 이백권 팀장(010-3388-5331)

CMN 토보팀 의료진 모집
일시: 매월 두 번째 주일 오후
장소: 김포M센터(이주민, 난민 의료지원)
분야: 치과의사, 치위생사
문의: 윤상영 팀장(010-9439-1180)

양재 권사 성가대원 모집
연습: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장소: 양재온누리교회 두란노홀
문의: 010-8949-1811

다문화 가정의 차세대를 위한 기도자 모임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12시
장소: 양재 JDS홀
문의: 010-6422-8376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영어 놀이 프로그램 'Dream Seed' 교사 모집
모집: 소그룹 반주
교사모임: 매주 토 오전 10시 30분
수업: 10월 14일~2월 2일
장소: 도곡교육관 B동 1층 꿈아이홀
문의: 박정옥 코치(010-4394-9309)
* 교사 자녀가 드림씨드 등록 시 등록비 할인 혜택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부천 032.322.9686

토요주일예배 9:0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2:00 / 4부(대학청년) 4:00 / 5부 7: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00 분당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1부 9:00, 영아2부 11:30 / 유치1부 9:00, 유치2부 11:30 / 유년1부 9:00, 유년2부 11:30 / 초등1부 9:00 / 초등2부 11:30 / 소년1부 9:00 / 소년2부 11:30 / PW1부 9:00 / 중등부 11:30 / 고등부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한사랑예배(탈북민)
주일 오후 2:00 꿈아이홀

사랑부예배(장애인)
주일 오전 11:30 꿈아이홀

중국어예배 오후 2:00 두란노홀

평택 031.651.9680

토요주일예배 10:2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분당 / 2부 11:25 분당 / 3부 14:05 분당

대학청년(주일) 16:00 분당

영어예배(주일) 14:10 301호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기도모임 매주 수 13:30 301호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30 분당
수요저녁경배와찬양예배 매주 수 오후 8:00 분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4층 영아부 예배실 / 유치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초등부 9:00 3층 예꿈 예배실 / 유년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파워웨이브 11:30 3층 파워웨이브 예배실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2층 분당

수원 031.895.6500

토요주일예배
토요패밀리워십, 예꿈놀이학교, 사이닝키즈, 어와나 10:00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찬양예배 14:00

대학청년(주일)
오후 2시 비전홀

새벽예배 월~금 오전 5:5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9:00, 11:30 조이홀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 9:00, 11:30 믿음홀 / 초등부 9:00, 11:30 대광빌딩 4층 / 소년부 9:00, 11:30 사랑홀 / 중등부 9:00, 11:30 비전홀 / 고등부 9:00 경찬홀 / 영어예배 차세대 11:30 경찬홀

인천 032.437.9686

토요주일예배 9:0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4부 14:00

대학청년 16:00 분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사이닝홀 / 유치부 9:00, 11:30 꿈아이홀 / 유년부 9:00, 11:30 드림홀 / 초등부 9:00, 11:30 기쁨홀 / 소년부 9:00, 11:30 믿음홀 / 파워웨이브 9:00, 11:30 소망홀

장애인에배 및 국제예배
사랑부 9:00, 11:30 사랑홀 / 다문화 모자이크 예배 10:30 소망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2층 분당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2층 분당

대전 042.825.3642

토요주일예배
10:00 분당, 한누리(탈북민) 11:00 303호

일요주일예배
1부 7:10 / 2부 9:00 / 3부 11:30 / 4부 젊은이예배 14:30 / 5부 대학부예배 14:30 누리홀/ 6부 19:00 / 세종교육관 분당 1부 9:00 / 2부 11:30 / 3부 14:30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5:20 분당 / 6:00 세종교육관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00 분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19:30 분당

주일 차세대예배
예꿈1부 9:00 302호 / 세종교육관예꿈 11:30 407호 / 영아부 11:30 301호 / 유치부 11:30 302호 / 꿈팡1부 9:00 304호 / 세종교육관꿈팡 11:30 402호 / 유년부 11:30 304호 / 초등부 11:30 303호 / 소년부 11:30 비전홀 / 중등부 11:30 누리홀 / 고등부 9:00 누리홀 / 세종교육관 파워웨이브 9:00 402호

강동 02.475.9686

토요주일예배 11:0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프라미스(분당), 프라미스U(사랑홀))

차세대예배
예수님의 꿈아이 11:30 두란노홀 / 유년부 11:30 사랑홀 / 초등부 11:30 드림홀 / 중고등부 9:30 사랑홀

장애인예배
사랑부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분당
수요저녁예배 19:40 사랑홀

새벽예배 오전 6:20 분당

남양주 031.565.9686

토요주일예배 10:30 3층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대학청년) 14:00 / 4부(지녀) 19:00 / 행복한 하나예배(탈북민) 11:00 온유홀 / 다문화예배 15:30 꿈팡홀

외국어예배 힌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1호 / 네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4호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3층 분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분당

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3층 분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2층 예꿈홀 / 유치부 9:00 2층 예꿈홀 / 유년부 9:00 2층 꿈팡홀 / 초등부 11:30 2층 꿈팡홀 / Awana 토요일 10:00 2층 꿈팡홀 / 중등부 오전 11:30 기쁨홀 / 고등부 9:00 기쁨홀

양지 031.331.8171

토요주일예배 9:0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Y,JE 학청년) 14:30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드림씨드홀 / 유아부·유치부 11:30 위더슨홀 / 유년부 11:30 아펜젤러홀 / 초등부 11:30 킬보른홀 / 중등부·고등부 11:30 박모세홀

주일기도모임 예배중보기도모임 주일 10:30 캠펠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예배 10:30 박모세홀/ 금요성령집회 21:00 시안홀(7-8월)

새벽예배 월~금 6:00 시안홀

영종 032.752.7937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백향목홀(3층)

새벽예배 월~금 6:00 백향목홀(3층)

차세대예배 파워웨이브(중고등부) 9:00 / 꿈팡(유초등부) 11:30 언더우드홀(2층), 예꿈(유아부, 유치부) 11:30 아펜젤러홀(2층)

국내 온누리교회		해외 온누리교회	
•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 양재 강부호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포로 31길 70 햇빛선교센터 • 부천 정재욱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 수원 김승훈 목사 (031) 895-6500 1708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 대전 김상수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3-6층 • 남양주 이기복 목사 (031) 565-9686-8(대표) 11946 구리시 아문안로 154 진성빌딩 2-5층 • 평택 신동식 목사 (031) 651-9680(대표) 17866 경기도 평택시 신흥1로 2길 61 2층 • 인천 김승수 목사 (032) 437-9686(대표) 2198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75 • 강릉 이준호 목사 (02) 475-9686 05335 서울시 강릉구 현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 양지		박철웅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 영종 도육환 목사 (032) 752-7937 22377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로 49 • 안산 온누리M센터 노규석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 기도처 • 태안온누리 임용성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 서산온누리 임용성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생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 봉화온누리 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 진해골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해골길 166 ■ 미서부 • 얼바인 박신운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 로스앤젤레스 이정영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 USA • 샌디에이고 이민욱 목사 1-619-847-4147 88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 산타모니카 정장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 괌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 미동부 • 보스턴 김철진 목사 1-781-933-7044 73 pine st, Woburn MA 01801 U.S.A. • 시카고 이종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 뉴욕IN2 심상현 목사 1-212-427-2055 401 7th Ave.(18th Floor) New York, NY 10001 •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 미북부 •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 앵커리지		서재범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award HWY Anchorage, AK 98503 • 밴쿠버 박태영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 오세아니아 • 시드니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8 Main Ave, Lidcombe NSW 2141 Australia • 오를랜드 유현목 목사 64-21-0810-3132 470 Glenfield Rd, Glenfield Auckland New zealand • 홍콩 송재욱 목사 852-2506-0089 221-227 Austin Tower 22-26 Austin Avenue, Tsim Sha Tsui, KLN, HK ■ 일본 • 동경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6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 Shinjuku-ku, Tokyo, Japan • 오사카 김철희 목사 81-6-6121-2015 (542-0083) Naniwa 3F 1-3-19Higasisinsaibasi Chuoku Osakasi Japan • 우에다 하카마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32)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 요코하마 니시야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Yao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 아치오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 나고야 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A-GAWA-KU SHIMAI-CHO61 EHWA DAIAMOND 2F • 교토 권영환 목사 81-75-748-9303 (615-0854)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2F),ukyo-ku, Kyoto-si ■ 중동 • 아부다비 김도균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rif Abu Dhabi, UAE ■ 동남아시아 • 베트남 이길택 목사 84-8-5412-2773 3SL.20-1 Grandveiv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허 민 홍동욱 홍세반 홍 정 Joel Kim Joe Lee Michael Lee ● 전도사 강요나 고은아 강성호 강은주 김성현 김인혜 김정욱 김창식 마커스 문성희 박종구 박지혜 서재욱 설상정 송민선 안대진 안지현 원유미 이민혜 이성훈 이수연 이은희 이용기 이지영 임지훈 윤성민 윤성준 장성진 장세윤 장유미 정선진 정은숙 정희기 조 단 조민철 최정수 최진숙 코바야시 메구 하정훈 한현희 호산나 황나현 핸슨오 Amos Lee Christine Daniel Kim David K Enoch Choi Esther Choi Shin David Kim Jeana Lee Jeff Yoo Jessica Yi Joe Oh Sam Chung Rachel Back Tommie Njobvu ● 사역장로 강희윤 권덕수 김경덕 김수광 김수호 김현중 남 영 백남인 서인택 박성수 우승호 윤영오 이문호 이장기 임병욱 정길안 한덕중 홍규석 ● 시무장로 강성규 고성환 권우중 권오현 김재동 김재우 김준영 남영근 박오택 성한재 손재래 신술문 여훈필 유희민 이관표 이광철 이상현 이수성 이은창 이준상 정민용 정현우 조규배 조성민 조원훈 한상훈 허규희 홍관희 황용인 Henry Park Hyun Chang ● 명예장로 김용식 엄성국 윤부국 ● 협동장로 강광일 김동민 김달수 김명훈 김연수 김오섭 김중수 윤창근 윤관돈 인성식 임현식 오명진 정석환 최태화 최승호 최태영 추교범 ● 성가사 고양숙 김성수 김수정 김윤희 김진용 김홍구 남봉우 박민규 박선영 박소영 박우람 송희경 엄지영 여훈필 염해숙 유기열 이정민 이정우 이종현 정영진 정현경 조경화 조요섭 홍현철 황애란 황진주	

광고

어린이/부모 하트스쿨' 참가자 모집

일시: 9월 23일~11월 12일 매주 토 오후 2시

장소: 양재온누리교회 JDS홀, 충성홀

신청: 아이스쿨

회비: 성인 1인당 5만 원(동반 어린이 무료)

문의: 010-4528-0477

온누리복지재단

온누리복지재단 후원계좌

하나은행/573-910015-15105/(북)온누리복지재단

문의: 황찬범 간사(010-6209-3667)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식당 배식 중, 식사 봉사자 모집(개인, 단체 가능)

일시: 중식(11:00-14:00), 석식(16:30-18:30)

문의: 서민정 사회복지사(02-3474-6080)

※점심식사 제공, 정기봉사자 우대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식당 배식 봉사자 모집(단체, 개인 봉사자 가능)

일시: 평일 10:30-13:30 ※점심식사 제공, 시간조율 가능

문의: 김효정 사회복지사(070-4340-2509)

용산구립청파노인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식당 배식 및 정리

일시: 평일 10-13시(점심식사 제공)

문의: 문소연 사회복지사(070-4340-2542)

재정

모바일현금으로 더욱 간편하게 현금하실 수 있습니다.

※ 모바일현금 특징

- 이체 수수료 무료
- 모든 금융기관 이용 가능

*사용 방법은 교회 홈페이지의 모바일현금 캠페인을 참조하세요.

상담

서빙고 온누리 상담실(선교관 지하 1층)

상담접수: 02-793-2997, 02-3215-3675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면접상담: 신앙과 심리상담(개인, 부부, 아동, 청소년, 가족)

심리검사: 각종 심리검사, U&A(약습 성격 유형/진로 검사)

특수상담: 법률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30-12:00

인터넷 중독 상담

양재 온누리상담센터(원형커피숍 자동문 안쪽)

상담접수: 02-570-7536, 010-4684-7536(문자전용), 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유 프로그램

법률 상담: 주일만 가능(예약 필수)

세무 상담: 둘째 주일만 가능(예약 필수)

소천

9/13(수) 서초B 박찬엽 성도 부친상 고 박현서

9/15(금) 도곡 정현숙 집사 모친상 고 강영순

9/15(금) 분당A 김철환 성도 부친상 고 장인엽

9/15(금) 브릿지33 변혜란 성도 부친상 고 변창훈

9/15(금) 양현 김원규 성도 모친상, 김정욱 집사 시모상 고 심은숙

9/15(금) OCC 이영우 성도 빙모상 고 조한순

9/16(토) 특별한조대 이현숙 성도 모친상 고 명구자

9/16(토) 성동광진 김이수 성도 시모상 고 허연옥

9/17(주일) 서초C 김재경 성도 부친상 고 김중환

9/18(월) 강남B 정영화 성도 부친상 고 최병은

9/19(화) 양재A 김철민 장로 부친상 고 정창수

9/19(화) S브릿지 백진주 간사 부친상 고 백정연

9/20(수) 분당A 유신정 성도 부친상 고 유철환

9/20(수) 서초B 오재정 성도 모친상 고 류승분

9/20(수) 분당A 김영희 성도 모친상 고 김정희

9/20(수) 서빙고 정승욱 권사 모친상, 최현재 장로 빙모상 고 정안순

9/20(수) 대전온누리교회 이세영 목사 부친상 고 이만재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이인용

편집부장: 김남원

기자: 정현주, 김현준, 홍하영, 김다애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6959-0001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성지를 사용합니다



INTERNATIONAL NGO

더 멋진 세상
better world

NGO 더멋진세상 어린이 영양지원 캠페인

하나님이 지으신 어린이들은 모두 건강하게 자라날 권리가 있습니다.

메마른 사막의 나라 모리타니.

세쌍둥이를 홀로 키우는 매무나(Maimona)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그녀는 **아이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한 끼와 깨끗한 물,**그리고 **함께 살아 나가기 위한 작은 도움이라고** 대답했습니다.영양실조와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원 대상 모리타니, 말라위 어린이(6개월-15세) 약 470명

지원 내용 영양죽과 고단백 영양가루, 건강검진을 통한 약품 지원

후원 기간 9월 한 달 간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어린이 영양지원에 우선 사용되며, 캠페인 종료 후 모인 후원금은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됩니다.

홈페이지 betterworld.or.kr 계좌 하나은행 573-910009-09905 (사)더멋진세상
문의 02-2271-2246 (내선 0번)더멋진세상은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 특별협의지위기관으로, 가난과 질병, 자연재해로 고통 당하는
지구촌 이웃들을 돕고 더 멋진 마을을 만들어가는 국제개발 NGO입니다.